

②-1
 이 해가
 20

②-3
 신유사
 20

②-4
 가가
 (정노)
 해비
 20

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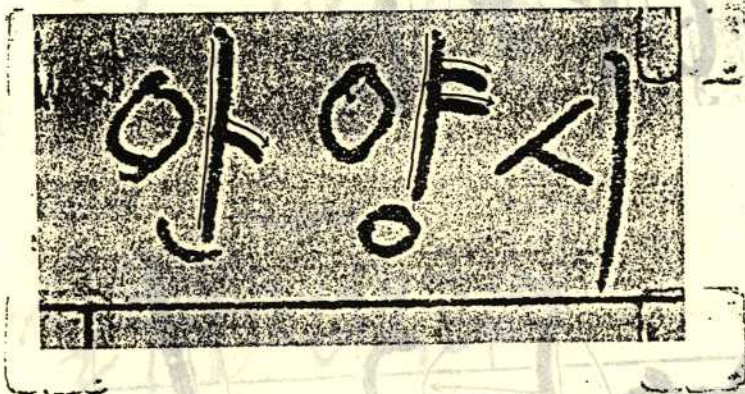
⑥
 20

⑦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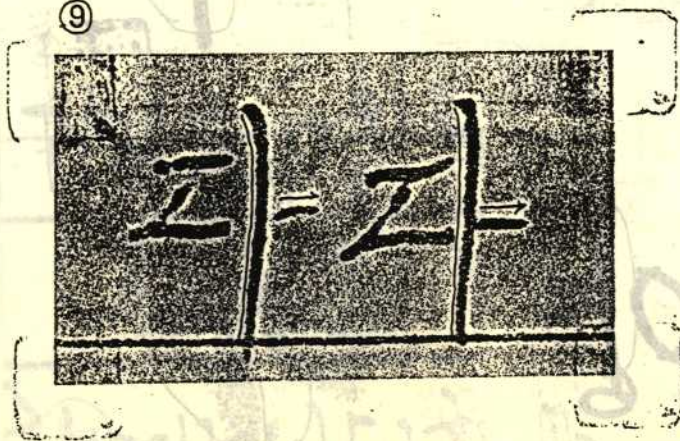
「ト」「フ」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ト」「フ」の文字を履歴書では14組中、大2、3匹を
水平が、右下りの筆法で収めてあり、造言書の
筆法と特色が共通する。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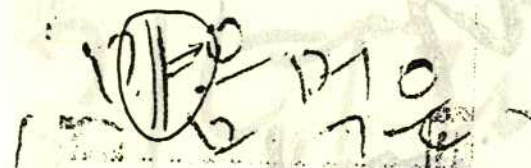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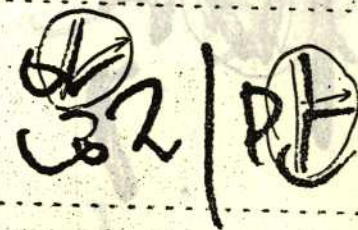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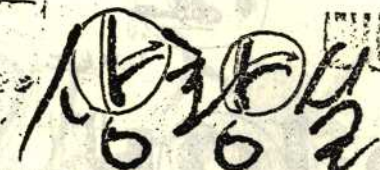


「ト」「フ」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③-2



④



「口」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①-1

민승환

하나

→

②

①-2

마리아

민승환

마리아

「口」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②-1

민승환

⑤

기년

⑥

민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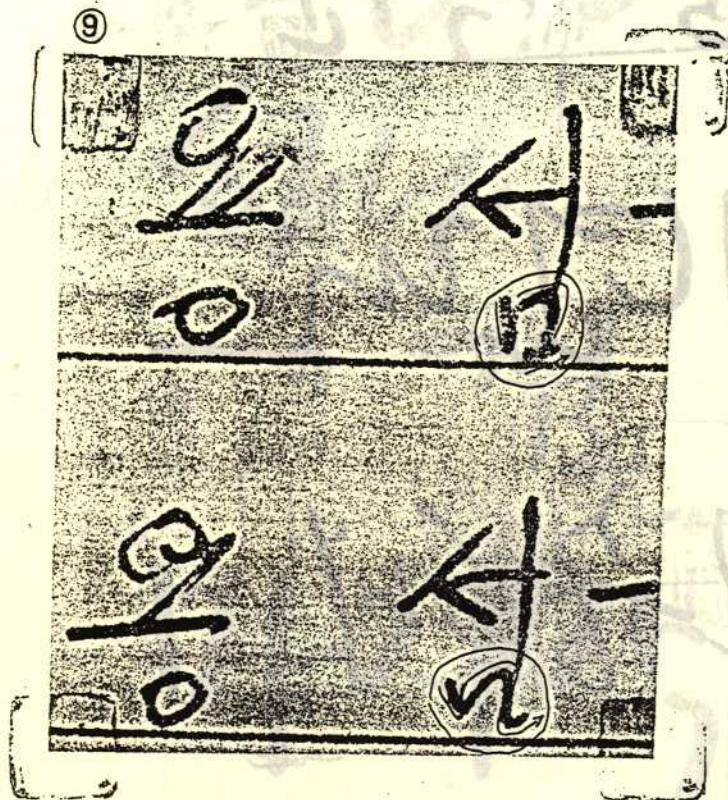
⑦

민승환

「口」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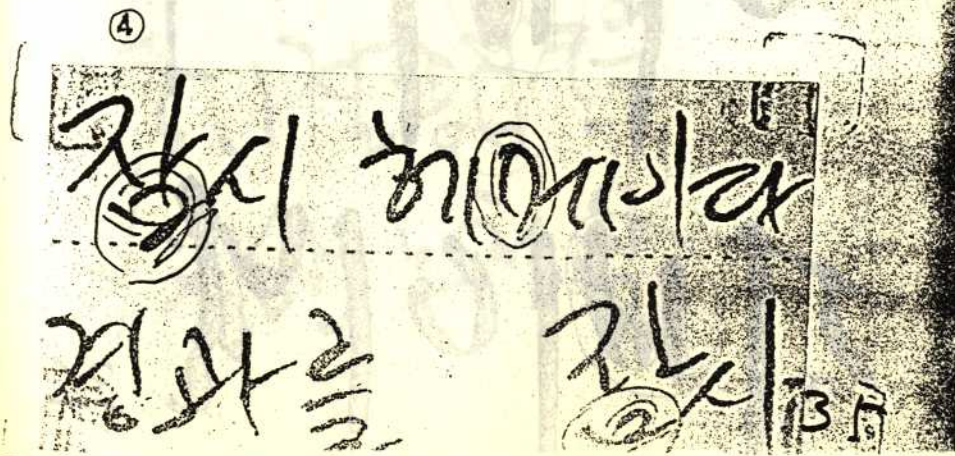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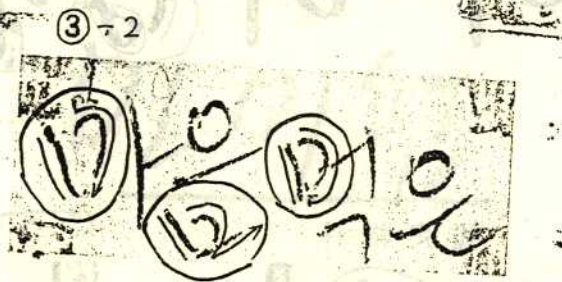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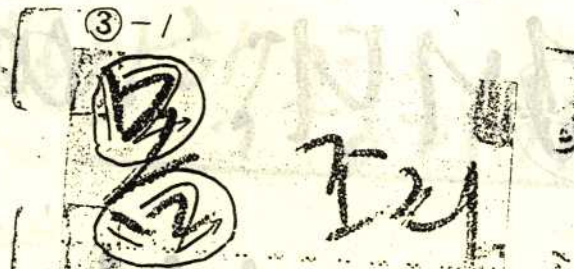
「口」の文字は、履歴書中に5組ある。書체는「あがら」楷書体で「ア」字に4組を「口」と4組の「あ」がある。最後の「あ」の如く行書体の逆筆で「あ」の如く、造言書の筆法の特徴と共通する。



34

「口」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ㄱ」의 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①-1 鑑定物件

아닙니다. 예

리우이 아쉽

①-2 鑑定物件

아빠지

기미이

「ㄱ」의 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②-1

한정정리위

②-2

민기

②-3

5.1정정정
정정정정정

日本の筆法について 実体顕微鏡

②-4
전도영 농성

⑤
전현철 목방

◎ 91년 7월 19일 ◎

☐자료 가-1-156 (수사기록 1014~1017)

진술서

본적 서울시
주소 경기도
호
성명 전현철 주민등록번호
직업 해직교사(전교조 성남지회장)
전화

- 1. 경력
84.5; 송림고 국어교사
89.7; 전교조 관련 해직
90.1; 전교조 경기지부장
91.2; 전교조 성남지회장

2. 김기설군과의 관계

89.7. 전교조 대량해직 사태시 성남지역에서는 전교조 성남지역 공동대책위가 결성된 바 있음. 이 당시 김기설군(가명 한정덕)은 성남 민청련 교육선전부장으로서 공대위에 결합, 성실히 일한 바 있음. 가끔 회의시 대면한 적이 있으며 그 당시 받은 인상은 착실한 젊은이라는 점이었음.

이후 89.10.3(개천절) 성남소계 경원대학교 C동 계단 강의실에서 있는 "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에서 만났으며 문제가 되는 방명록에 같이 서명한 사실이 있음.

기억되기로는 당시, 본인은 성남지회장으로서 대회 진행시 격려사를 하였으며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온 정일부(당시, 성남민청련 회장)도 축사를 하였음.

이후 김기설군과의 관계는 별로 없으며, 90년 당시 본인은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맡은 관계로 성남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성남지역 활동가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음.

3. 김병희군과의 관계

김병희군은 본인이 송림고 재직시 국어를 가르쳤던 제자임.

이후 본인이 해직될 당시, 여러 가지로 사무실에 와서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었음. 그 이후 현재까지 스승과 제자 사이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임.

4. 티사랑 청년학우회 방명록

①방명록종류: 일반 백지 방명록

②서명순서: 본인

정일부

한정덕(그 당시 가명)

③서명 내용은: 본인이 좀 길게 썼고 나머지 사람은 조금 적게 쓴 것으로 기억됨.

④서명 필기구: 본인은 사인펜 종류 나머지는 좀 더 굵은 필기구.

5. 방명록

①보관: 김병희 보관

②새로이 찾게 된 동기: 유서대필 공방과정.

③티사랑 청년학우회에서 5월 당시 범국민 대책 회의에 김기설의 진실, 강기훈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임.

1991. 7. 19.

전현철

☐자료 가-1-157 (수사기록 1018~1024)

진술조서

성명 전현철(全顯哲)

주민등록번호

주거 경기도

본적 서울

직업 해직교사(전교조 성남지회장)

연령 35세 1955. 8. 3.생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1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84년 5월부터 성남에 있는 송림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89년 7월 전교조 활동과 관련 해직되었고, 90년 1월부터 전교조 경기지부장, 91년 2월부터 전교조 성남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 저는 89년 10월 성남 테사랑청년학우회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김기철씨가 방명록에 서명한 사실을 목격한 바 있어서 오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출두하여 자필로 그 경위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묻는다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지난 5. 8 서강대학교에서 분신 사망한 김기철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1989. 7. 제가 전교조 활동과 관련 해직되었을 때 전교조 성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당시 김기철은 성남 민청련 교육선전부장으로 한정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공동대책위원회에 와서 알게 되었고, 가끔 회의를 할 때 대면한 적이 있으며 테사랑 청년학우회 창립 때에서도 만났고, 그후 별 관계는 없으며 90년 1월부터는 제가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맡아 성남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였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이 89년 7월 김기철을 처음 만나 89년 10월 테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까지 몇 차례나 대면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에 성남지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10여 차례 만난 것 같습니다.

문 :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만났는가요.

답 : 그 이후에는 별로 만나지 못하다가 금년 5월 성남 경원대학의 천세용군이 분신 자살하여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었는데 제가 그 집행위원장을 맡아 경원대학교 학생회의실에 있을 때 김기철군이 그 곳에 분향하러 왔다가 저와 만나게 되어 악수를 한 일이 있

고, 그 날씨가 김기철이가 분신하기 2-3일 전 같은데 그날 성남의 김병희의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철의 본명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한정덕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5. 8 분신사망한 후에야 그 본명이 김기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 김기철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키 약 170센치미터 정도에 호리호리하고 마른 편이며, 검은색 팔레 안경을 쓰고 89년도에나 또 91년 5월 분향하러 왔을 때에도 콘택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89년 10월에 경원대학교에서 있었던 테사랑 청년학우회에서 김기철을 만나게 된 경위를 말해 주시오.

답 : 89년 10월 3일 개천절로 기억하는데 경원대학교에서 있었던 테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에 저의 제자들이 그곳에 많이 참석을 하였는데 그중 김시중, 오세창 등이 저에게 격려사를 부탁하여 가게 되었으며 그때 성남 민청련 회장 정일부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김기철도 정일부와 함께 왔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곳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는가요.

답 : 네, 방명록에 서명하였습니다.

문 : 그때의 방명록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오.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엘범식의 보통 방명록이었는데 표지는 김정색 비닐이었고 그 안의 종이는 일반 백지 종이였습니다.

문 : 그날 창립대회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와 방명록에 서명한 숫자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요.

답 : 참석자는 100여 명이었고 서명자의 숫자는 일부러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방명록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길게 두어 줄 쓰고 서명을 하였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도 서명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제 앞에 누가 서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쓴 다음에 정일부씨 그리고 김기철씨(당시는 한정덕이라는 가명을 쓴)의 순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문 : 위 두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그 방명록이 세로로 칠해져 있는가요, 가로로 칠해져 있는가요.

답 : 방명록의 짧은 쪽이 세로로 칠하여 저서 옆으로 넘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과 정일부, 한정덕 등 같은 페이지에 서명하였나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제일 먼저 쓰고, 정일부와 한정덕도 같은 페이지에 썼으며 가로로 썼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때 어떤 필기구로 서명하였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저는 김정색으로 기억하는데 싸인펜인지 혹은 가느른 프러스펜인지 모르겠으나, 가느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며 다른 사람은 좀더 굵은 필기구로 서명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그 당시에 서명한 필기구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이번에 전민련에 제출된 후 그 사본이 배포된 것을 보니 위에 설명한 바와 같았습니다.

문 : 그 방명록은 누가 어디에 보관하였다가 어떻게 제출하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알기로는 테사랑 청년학우회의 교육선전부장이었던 김병희가 보관하였다가 이번에 유서대필 문제가 벌어지자 테사랑 청년학우회측에서 그것을 찾아 김병희가 명동성당으로 갔다 주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성남 주민교회에 살고 있는 이도례씨를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1987년부터 주민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그 교회에 이해학 목사님의 딸인 이도례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전교조나 민청련 등이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 주민교회를 빌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알고 지킵니다.

문 : 5. 8 김기철의 분신사망한 후 연세대학교에 있는 영안실이나 그곳 학생회관에 있었던 대책회의 사무실에서 이도례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성남의 일이 바빠서 분향하러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도례를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했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전 현 철

1991. 7. 19.

서울 지방 검 찰 청

검 사 신 상 규

검찰주사(보) 신 인 섭

■자료 가3-36

인권위 제 91-18호
수 신 : 각 사회단체 및 정당
제 목 : 필적감정결과 설명회 개최의 건

1991. 7. 22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회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김기설씨의 분신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유서대필의 진상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활동결과 검찰측이 주장하고 있는 유서대필에 관해서는 엄청난 의혹이 있어 본회는 지난 5월 부득이 해외 교회기관(아시아 기독교협의회)을 통해 김기설씨와 강기훈씨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는 지난 6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에 필적감정을 맡기고 JNCC는 현재 일본 감정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니시 요시오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본회는 7월 18일 김기설씨와 강기훈의 필적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정결과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결과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기에 우선 제 사회단체 및 정당에 제신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91. 7. 26.(금) 오전 8시
장 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그릴
참석예정단체 : 민변, 민교협, 사제단, 여연, 기자협 등의 대표 약간명
각 정당 인권위원장,
기타 사회단체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박 형 규

● 91년 7월 23일 ●

■자료 가1-158 (수사기록 1025~1027)

으로 기억됩니다.

진술서

성 명 곽대순 (郭大淳) 성 별 남
연 령 39세 1952. 1. 7.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경남
주 거 강원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원주지회

1. 방명록의 그후 처리
김기설씨의 분신 이후 유서의 대필여부로 논란이 일어나자 5월 20일경으로 기억되는데 방명록의 사본(복사본)을 강원도 지부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겨레신문사 사회부의 "이 모"라는 기자에게서 원본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지회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방명록을 마침 서울에 간다는 사람(김영애)이 있어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사람은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 다음과 같이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991. 7. 23
곽대순

- 1. 1980년 2월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1980년 3월 - 1989. 7월 : 원주시 진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1989년 8월 - 현재 :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어 전교조 원주지회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1-159 (수사기록 1028~1036)

진술조서

1. 고 김기설을 알게 된 경위
1991년 3월 23일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에 내빈으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 명 곽대순 (郭大淳)
주민등록번호
주 거 강원도
거주지 강원도
본 적 경남
직 업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원주지회
연 령 39세 1952. 1. 7.생

1. 방명록 작성 경위
1991. 3. 23. 오후 1시 30분경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에 김기설씨가 원주 민주시민회 사무국장 홍중희씨와 참석했습니다. 이때 본 참고인은 방명록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했고 김기설씨는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최선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민족 민주운동연합 사회교 부장 - 김기설"이라고 썼습니다.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7. 2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방명록의 형태 및 기재 필기구
방명록은 시중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시가 2,000원 정도의 앨범형입니다. 필기구는 검정 싸인펜이었던 것

1. 저는 1980년 2월 서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그해 3월부터 1989년 7월까지 원주지회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1989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으로 해직되었고 전교조 원주지회 상근자로서 교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저는 1991년 3월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

식에 참석한 김기설이가 방명록에 서명한 일을 알고 있으며, 그후 1991년 5월 20일경 방명록 복사본을 전교조 강원도지부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묻는다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을 하다.

문 : 진술인은 1991년 7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1020호 검사실에 출두하여 자필로 인적사항, 경력, 김기설을 알게 된 경위, 방명록의 작성 및 처리 경위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모두 다 사실대로 기재하였는가요.

답 :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 된 것은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처음 만난 것인가요.

답 : 네, 1991년 3월 23일 원주지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개소식을 하였는데 김기설이가 내빈으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언제쯤 김기설이가 왔는가요.

답 : 사무실은 원주시 인동 17번지로 알고 있으며, 그날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를 지내기 전에 김기설이가 왔으며 대략 1시 3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문 : 3월 23일 사무실 개소식에는 어떤 사람들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가요.

답 : 전교조 원주지회의 회원들과 재야민주운동단체의 사람들이 약 50명 가량 참석하였으며, 대부분이 방명록에 서명하였습니다.

문 :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답 : 대부분 원주 사람들로 알고 있으며 김기설씨가 왔을 무렵에는 상지대학교 박정원교수와 새내공방 김호영씨와 원주 민주시민회 사무국장 홍중희씨 등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씨는 어떻게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는가요.

답 : 홍중희씨가 함께 데리고 왔는데 홍중희씨 말에 의하면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속초동우전문대 학생 정연석을 면회하러 왔다가 소식을 듣고

같이 왔다고 합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 주시오.

답 : 그날 처음 보았으며, 한번 본 것 뿐인데 전민련의 사회부 무슨 부장이라고 하였고 첫 인상이 암전한 얼굴이며, 김정색 계통의 가죽이나 비닐로 된 사파리식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지퍼가 아닌 단추가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경을 썼었고 키는 저보다 커서 170센치미터 정도로 생각합니다.

문 : 그때 홍중희씨와 같이 온 사람은 전민련의 김기설씨 한 사람 뿐이었나요. 아니면 같이 온 사람도 있었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중희씨와 김기설 씨 두 사람만 같이 들어왔습니다.

문 : 그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방명록의 형태 등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하여 주시오.

답 : 보통 시중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2,000원짜리 정도의 앨범형인데 겉표지는 검정색이고 속은 흰 종이며 짧은 쪽을 세로로 묶어 옆으로 넘기는 형태입니다.

문 : 그 방명록에 서명할 때 횡서로 썼나요. 그리고 한장에 한명씩 썼나요. 아니면 여러 명씩 썼나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장에 한명씩만 썼고 사람에 따라 이름만 쓰기도 하고 글귀를 한줄씩 쓰기도 하였는데 모두 한장에 한명씩 썼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의 앞에 쓴 사람이나, 뒤에 쓴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같이 온 홍중희씨가 먼저 쓰고 다음장에 김기설씨, 그 다음장에 김호영씨가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러면 위 세 사람이 이름만 썼는지, 글귀를 썼는지도 기억을 하는가요.

답 : 세 사람 모두 이름만 쓴 것이 아니고 글귀를 썼는데 다른 사람의 글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기설이가 쓴 글귀는 5월 20일경에 복사를 해서 강원도 지부에 보내서 기억을 하는데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 최선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민족민주운동 연합 사회국 부장 김기설"라고 썼습니다.

문 : 김기설이 방명록에 글을 쓸 때 사용한 필기구

를 기억하는가요.

답 : 김정색 싸인펜이었습니다.

문 : 방명록은 그후 누가 어디에 보관하였는가요.

답 : 원주지회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었는데 당시 상근자가 7명이고 캐비닛은 두 개뿐이어서 서로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누가 특별히 보관한 것은 아닙니다.

문 : 그 방명록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김기설씨 분신 이후 유서대필 여부가 문제되자 제가 5월 20일경에 캐비닛 속에서 찾아내어 김기설이가 쓴 한 장을 사본하여 팩시밀리로 춘천에 있는 강원도 지부에 보냈는데 그날 한겨레신문사 사회부의 이 모 기자가 원본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였기에 그날 2시경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다는 김영애(전교조 원주지회에 근무하는 황선희 친구)가 서울로 가지고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곳에 오기로 한 한겨레신문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강원도 지부에 보낸 것은 김기설이가 쓴 부분 한 장뿐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그날 오후 2시에 서울로 보낸 원본은 전체인가요. 아니면 김기설이가 쓴 부분 한장인가요.

답 : 복사본을 강원도 지부에 보낼 때도 떼어내지 않은 채로 복사하여 1매를 보냈는데 서울에 원본 전체를 그대로 보냈으며, 한 장도 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 방명록에 서명된 분량이 몇 장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30-40장 가량됩니다.

문 : 진술인이 5.20.경 방명록을 찾아내어 강원도 지부와 서울 한겨레신문에 보낼 때 그 전이나, 그 후에 전민련이나 전교조측에서 김기설의 필적을 찾아달라고 연락이 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스스로 찾아 보냈었고, 그 후에 전교조 본부와 언론기관 등에서 연락이 온 일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원주지회에는 방명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사본을 해 놓은 몇 장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이 유서대필 변란이 벌어진 것

을 알고 스스로 전교조 원주지회 캐비닛 속에 있는 방명록을 찾아 내었을 때 그곳에 있는 김기설의 글씨가 바로 1991년 3월 23일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 때 김기설이가 쓴 글이 틀림없는가요.

답 : 제가 평소에 김기설을 알거나, 또는 김기설의 글씨체를 알고 있지는 못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3.23 서명한 것이 바로 제가 5.20.경에 전교조 강원도 지부와 한겨레신문사에 제출한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문 : 진술인 이 방명록을 스스로 찾아내어 강원도 지부와 한겨레신문사에 제출한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

답 :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5.20.경으로 기억하며 제가 한겨레신문에 기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밤에 써서 팩시밀리로 보냈기 때문에 제 글이 게재되기 전날 등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의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것이 5.25.이니 위 방명록을 제출한 것이 5.24.이 맞는가요.

답 : 제 글이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것이 5.25.이라면 방명록을 제출한 것은 5.24.입니다.

문 : 그러면 5.24.경에는 이미 전민련측에서 전교조나 재야단체에 김기설의 기고를 하였거나 기타 김기설의 글씨가 있으면 찾아달라는 연락이 간 후일 터인데, 진술인은 그 연락을 받고서 찾아낸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스스로 보냈다고 보다는 강원도 지부에서 보내라고 하기에 팩시밀리로 보냈습니다.

문 : 그러면 전교조 강원도 지부에서는 원주지회에 김기설의 필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강원도 지부에 보내려고 하였는가요.

답 : 제가 그 전에 강원도 지부장에게 원주지회에 김기설 필적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강원도 지부장에게 김기설 필적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저희 전교조에 모임이 자주 있어서 강원도 지부장 민병희씨가 원주에 자주 오기 하고 또 제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춘천에 자주 가기도 하는데, 원주에서인지 춘천에서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날짜도 5.8. 김기설씨가 분신을 한 후 사진을 보고서 우리

개소식에 왔던 사람이 아닐까 하고 방명록을 찾아본 일이 있는데 그후 언제쯤에 강원도 지부장에게 이야기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유서대필 여부가 신문에 보도된 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답 :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전 같기도 하고 그후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문 : 1991년 3. 23 김기철을 데리고 왔던 홍중희씨에 대하여 알고 있는대로 말하십시오.

답 : 원주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35세 가량이고 원주민주시민회 사무국장인데 그의 전화번호는 46-3686번 입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박대순

1991. 7. 2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안재호

◎ 91년 7월 24일 ◎

▣자료 가-1-160 (수사기록 1037~1042)

진술서

성명 윤석순 성별 여
연령 48세 1942. 10. 25생
본적 서울시
주거 서울시
자택전화
직업 무직

위의 사람은 사건의 으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저는 홍성은의 엄마로서 제 딸이 김기철 분신자살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제가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하겠습니다.

1) 1991. 5. 17. 19:00경 시내 성동구 화양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려 전화를 받아보니 내가 강기훈의 엄마인데 홍성은의 엄마되시냐고 묻기에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저희 집을 아느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들(강기훈) 딸이 홍양 집이 민중병원 근처라고 하는데 내집에서 가까우니 금방 나갈 수 있으니까 민중병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서 그날 20:00경 민중병원 정문 앞에 나가보니 강기훈의 어머니와 강기훈의 친구라고 하는 젊은 남자 1명이 있는 것을 보고 만났습니다.(그 남자는 강기훈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하일동에서 농사짓는 강기훈의 친구라고 소개했음). 근처의 다방도 없고 이야기 나눌 마땅한 장소가 없어 제가 그분들을 저희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 안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기훈 어머니는 저희집 전화번호를 기훈이가 가르쳐주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기훈이 어머니는 기훈이가 저를 만나보고 변호사문제를 의논해야만 홍양이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하므로 자기의

(강기훈)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홍양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기(강기훈)가 입장이 곤란해지므로 기훈이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훈이 어머니와 기훈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변호사를 안 데느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제 딸이 진술하면 편하고 자유롭지 않겠느냐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홍 양을 48시간 이내에 풀어주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 아들을 쫓쫓여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훈이 어머니 보고 "변호사 선임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딸이 검찰청에서 나온다고 하여 제 딸 아버지가 검찰청에 가 있는데 집에 돌아오시면 아버지와 의논하여 내일 아침에 연락을 드릴테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강기훈 집 전화번호를 그 사람들이 적어 놓고 갔습니다.

2)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밤 12시가 다 되어서 웬 남자 2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1명은 문 뒤에서 있어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고, 1명은 저희 집 문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키는 보통 키에 대머리가 훌렁 벗겨졌는데 대뜸 경찰서에 왔으며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척하면서 도로 집어 넣더니 그래서 저는 의심이나 어느 경찰서 누구냐, 다시 한번 보자 하니까 들은 척도 안하면서 "검찰에서 연락받고 나왔는데 홍양이 지금 집에 와 있다고 하는데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홍 양을 만나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딸이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 나갔다고 하느냐 어느 경찰사에서 나왔는지 신분을 밝히라고 거들 요구하니까 그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이상하다"며 "다시 전화해보고 오겠다"며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07:00경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 걸려오기를 "어제 저녁에 왔던 사람들이다. 홍 양 왔느냐"고 묻기에 제가 "오기는 왔는데 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니까 전화가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후 제가 티비 뉴스를 보니까 전민련 공동의장 한상렬씨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 집을 찾아왔던

대머리와 얼굴이 닮았기에 저는 그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집에 낯선 사람들과 기자들이 자꾸만 찾아 오고 혹시나 전민련 사람들이 제 딸에게 해꼬지를 할 까봐 겁이나 제가 검찰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고 성남시 태평동에 살고 있는 이모집에 데리고 가라고 하여 딸은 제 아버지와 다음 날 새벽 02:00경 이모집으로 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5월 18일 06:30분경) 제가 강기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제 딸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는 필요없게 되었고 제 딸이 강기훈네나, 전민련과 접촉하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로 '제 딸이 어젯밤 새벽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버지한테 혼나고 머리까지 흘랑 깎았는데 지 방에서 자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방문을 열어 보니 없어졌다'고 하니 까 기훈이 어머니 딸은 '걱정되지겠다'고만 했습니다.

3)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제 딸이 검찰에 있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날(5월 17일) 기훈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오고 나서 밤 8시 넘어 저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제가 받았는데 웬 여자 홍 양 대학선배라고 하기에 제가 선배 누구냐고 물으니까 수연이라고 하면서 홍 양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묻기에 안 나왔다고 하니가 그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기에 제가 변호사를 대려면 돈이 들지 않겠느냐고 하니가 '돈 걱정은 하지 말라 학교선배들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몇분 계시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기훈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제 딸이 전민련 운동권 관계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속상해 '빨갱이(운동권)가 뭐가 좋다고 그런데서(전민련)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기훈이 어머니 하는 말이 '빨갱이가 아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에 빈부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보자고 민주화운동하는 것이지 절대 빨갱이가 아니다'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딸은 김기설의 애인도 아닌데 마치 애인인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기자들과 전민련 사람들이 자꾸만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 제 딸의 장례문제도 있고 저희 가정문

제도 있고 하니 이제는 아무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91. 7. 24.
위 진술인 윤 석 순

저는 무학자이므로 자필로 쓸 수 없어 제가 구술하고 제 딸이 대신 받아 쓴 것입니다.

대필자 홍 성 은

◎ 91년 8월 12일 ◎

☐자료 가1-161 (수사기록 1043~1049)

진 술 조 서

성 명 김 점 렬 (金 点 烈)
주 거 경기 [redacted]
전 화 [redacted]
본 적 서울 [redacted]
직 업 무 직 연 령 1936년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8.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주거지에서 남편 강용수(자가용 운전수)와 아들 3명을 뒷바라지하며 가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1. 저는 1991. 5. 8. 서강대학교에서 투신 사망한 김기설의 고모인데 5. 8. 당일부터 장례를 치를 때까지 매일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영안실에 가서 유족들과 같이 김기설이가 죽은 경위 유서의 글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묻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문답하다.

문 : 진술인에 대하여 7. 초순경부터 검찰에 출두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1개월 지나 오늘에야 출두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그와 같은 연락을 김기설의 매형 장병호를 통하여 받았는데 저도 가사에 바쁘고 또 같이 출두하라는 오빠 김정렬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늦어지다가 오늘에야 출두하였습니다.

문 : 1991. 5. 8. 서강대학교에서 사망한 김기설과의 관계를 말하시오

답 : 저의 친 오빠 김정렬의 아들이므로 친조카입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듣고 연세대학교에 차려진 빈소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시오

답 : 5. 8. 오전에 저의 6촌동생되는 김봉렬이 파주의 저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알려주기에 바로 남편 강용수와 함께 기차를 타고 신촌역에 내려 연대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것이 점심 때가 되기 전이었는데 영안실에 도착하니 저의 오빠인 김기설의 아버지 김정렬씨와 김기설의 누나인 김화용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은 5. 8.부터 장례를 치른 5. 12.까지 계속 빈소에 머무렀는가요

답 : 그곳에서 밤을 새우지는 아니하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빈소에 가온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5. 8.과 5. 9.경에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김기설의 유족들과 김기설의 사망경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대화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하여 보시오

답 : 정확한 시각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일과 9일 세브란스병원에 있을 때 그곳에 기설의 둘째 매형 김용기가 타고 온 봉고차가 주차장에 있었는데 김기설의 아버지,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매형들이 이야기하기를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닌 것 같고 유서의 내용도 남독이 가지 않으며 정말 자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문 : 누가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던가요

답 : 기설이가 갑자기 죽어서 말들이 많았는데 특히 둘째 누나 화경이와 셋째 누나 화용이가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면서 왜 글씨가 이렇게 생겼는지 동생의 글씨가 아니라면서 의심스럽다고 하였고 김기설의 아버지 김정렬도 기설이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글씨를 알고 있는가요

답 : 친조카이기는 하나 저는 기설이의 글씨를 알지 못합니다.

문 : 김기설의 유족들이 유서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던가요

답 : 김기설의 생모는 기설이가 5-6세 때 사망하였고 그후 계모가 들어왔으나 정이 적고 또 큰누나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계속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유서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기재하고 큰 누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누나들이 이상하다고 하였으며 또 죽기 직전에 결혼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사망한 김기설이 언제 누구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였는가요.

답 : 김기설의 아버지와 누나들의 말에 의하면 4 중순 경 기설이가 둘째 누나집에 와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여자쪽에서 약혼식을 하자고 한다고 하여 누나들이 방이라고 얻어줄 궁리를 하였었다는데 죽을 이유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유족들과 장례를 준비하던 전민련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언쟁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제가 5. 8과 9일 등 계속하여 지켜보니 누구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례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오빠(김기설의 부) 김정렬을 둘러싸고 뭐라고 귀찮게 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따로 모여 대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엿듣고 감시를 하기에 매우 기분이 나빴었는데 세계 사위가 그들에게 사람 죽여 놓고 이용만 하는 놈들이라고 하며 우리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욕을 한 일이 있었고, 또 저도 장례 전날인 5. 10.인가 11.에 그 사람들과 한바탕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김기설의 아버지가 애초부터 빨리 화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7일장을 하여 5. 14에 기설이 옆에 안치되어 있던 강경대와 함께 장례를 치룬다고 하기에 화가 나서 "너희들이 기설이를 이용해 먹고 이제와서 마음대로 장례를 끝내서 노인네들을 고생시키고 시체를 놓고 이용해 먹느냐", "우리 사위들끼리 장례를 치루겠다"며 욕을 한 후 시골로 가버렸는데 그날 밤에 다시 변명되어 5. 12에 장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이와 같이 유족들이 사망경위나 유서에 대하여 의심을 할 때 장례위원회나 전민련 간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답 : 여러가지 말로 변명도 하고 자기들이 죽인 것

이 아니라고 하면서 장례를 책임지고 잘 치루어준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가족들의 뜻과 달리 질질 끌고 7일장을 하지도 하다가 5일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죽은 사람을 놓고 저회 마음대로 이용하고 특히 장례날에도 아침부터 시작하여 신촌로타리와 서강대학교에서 무슨 노제니 뭐니 하여 하루종일 가족들의 진을 다 빼놓고 전민련 사무실을 둘러 원진그룹인가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저녁 5시가 넘어 저는 그만 시골로 가버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밤늦게 묘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묘자리도 파 놓지도 아니하여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겠다는 등 시비가 많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이용만 하여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정열

1991. 8. 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장봉각

☐자료 가-1-162 (수사기록 1050~1059)

진술조서

성명 김정열 (金靖烈)

주민등록번호

주거 서울

전화

본적 경기

직업 공원

연령 56세 1935. 4. 18생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8.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면목동에 있는 봉제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 5. 8 서강대학교에서 사망한 김기설의 아버지입니다.

1. 저는 오늘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출두하였는데 김기설에 관하여 묻는다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출두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에서야 출두한 사정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기설이가 죽어서 정신이 없었고 또 남의 회사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오기가 어려워 저의 사위나 딸이 대신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었고 또 지난번에 검사님에게 말로는 설명한 일이 있어서 오지 않고 있다가 여러 차례 독촉이 있기에 오늘에야 나왔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사인과 사망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첫날에는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찰관에게 기설이가 분신자살하였다는데 대하여 아무 의의가 없으니 속히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영안실에서 저의 딸들과 사위들과 같이 만나 생각해보고 또 장례를 치루면서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 생각이고 기설이의 둘째누나, 세째누나가 모두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며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서강대학교에서 사람들도 별로 없는 아침 일찍이 분신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죽기 한 달도 못된 4 중순경에 집에 다녀간 일이 있는데 그때 둘째 누나집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일이 있어서 기설이가 자살하였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또 작년 봄에도 기설이와 같이 지내던 운동권 사람들에게 맞아서 뇌수술을 한 일도 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례를 치를 때도 저희들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 누구로부터 김기설의 사망소식을 듣고 영안실로 갔었는가요.

답 : 5. 8 아침 9시쯤 안양에 있는 큰 사위 김종선이 먼저 연락을 받고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전화를 해주어 알고서 세계말 김화용에게 전화한 후 같이 10시가 지나서 연세대학교로 갔더니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얼굴도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날 오후에 검사가 와서 사체를 본다고 할 때 가족들이 들어가서 저도 얼굴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누가 기설이가 분신자살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주고 또 유서를 보여주었던가요.

답 : 지금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서준식씨 등 그곳에 있는 간부들로부터 대강 설명을 들었고 그날 오후에 어느 회의실로 가서 검사를 만나고 그곳에 나와 있던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였는데 그때는 정황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만 대답을 하고 빨리 장례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 누구로부터 김기설의 유서를 받아보았으며 유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글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요.

답 : 제가 그날 오전 연세대학교 영안실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서준식씨가 김기설이가 분신자살하였다는 유서를 보여주었는데 그때에는 정신없이 우리 기설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소리치고 있었고 유서를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는데 그날 밤 영안실에 있을 때 유서를 복사한 것이 여러장 있었는데 천천히 읽어보니 기설이의 글씨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하였고 기설이가 자라난 과정으로 보아 저를 길러주고 학교도 보내준 큰누나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는 것도 이상하였고, 또 부모에게 죽을 작정을 하고서 쓴 편지가 막 날아갈 듯 쓴 달필이고 또 박도박 쓰거나 망설임 흔적도 없는 것이 기설이의 글씨라고 생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9.과 10일경에 기설이의 시골 친구들이 문상을 왔을 때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 : 9일인지 10일인지 날씨는 모르겠으나 아침 일찍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중학교 친구 한명이 와서 문상을 한 일이 있고 또 저녁에 기설이의 중학교 친구들이 여러 명 왔는데, 그 애들에게 기설이의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한 적이 있으나 유

서의 글씨에 대하여 특별히 누구에게 말하였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 : 5. 9 내지 10경 아침 일찍 문상을 한 김기설의 중학교 동창생 일명은 진술인이 유서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에 자신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영안실에 있던 유서 한 장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설의 편지와 대조해 보았는데 생각나지 않는가요.

답 : 아침 일찍 문상을 온 여자 동창생은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때 그 친구나 또는 다른 친구에게 글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희미합니다.

문 : 김기설의 생모는 언제 사망하였으며 그후 누가 김기설이를 키우고 학교에 보냈는가요.

답 : 기설이가 5 내지 6살 때 생모가 사망하였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저는 주로 일을 하러다니 잘 몰랐는데 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구박이 좀 심했었다고 하고 또 제가 70년대 후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을 하러 다녀온 적도 있어서 계모에게 정을 붙이지 못한 것 같고 큰누나가 시집을 간 후에도 서울로 올라와서 기설이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렇고 기설이의 큰누나도 유서의 내용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만 뭐라고 쓰고 큰누나 대하여서는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 그밖의 유서의 글씨와 내용 이외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답 : 기설이가 4 중순경에 결혼을 하겠다고 누나들에게 의논하여 둘째누나가 누나 3명이 의논하여 방이라도 얻어 줄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자살하였다니 이상하기 짝이 없고 또 작년 봄에도 성남에 있는 민청년의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 그들에게 얻어 맞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수술을 한 후에도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여 놓고 안양의 누나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가 말없이 떠나버려 그 일과 이변에 죽은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문 : 작년 봄에 김기설이가 뇌수술을 한 사건에 대

하여 말하여 보시오

답 : 그때 기설이가 성남에 있는 식당에서 활동하면서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해 5월경에 머리를 크게 다쳐 성남에 있는 양친회병원에 입원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안양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고 안양에 사는 큰누나가 시중을 들어준 일이 있는데 그때 기설이가 말하기를 술을 먹고 넘어져 다쳤다고 하였으나 제가 보기에는 언어 맞은 것이 틀림없고 성남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기설이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문병을 다녔는데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저에게 알려주는 말이 기설이를 문병한 친구들이 기설이에게 맞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절대로 맞았다고 하면 안된다고 위협을 하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5. 8부터 5. 12까지 영안실에 있으면서 장례위원회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하여 보시오.

답 : 저로서는 자식이 그와 같이 죽은데 대하여 가슴이 아프고 당장 그 다음날이라도 화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서준식 등 장례위원회인자 전민련인자의 간부들이 절대로 화장할 수 없다며 무슨 열사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이 장례를 책임지고 잘 치루겠다고 하며 7일장을 하자, 강경대와 같이 장례를 취루자, 5. 12이라 5. 14이라 하며 가족의 뜻은 들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이용하였고 제 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였는지 검정색 양복을 사다가 입혀 놓고 제가 우리 딸이나 사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식사를 하러 갈 때 화장실에 갈 때도 계속 따라 다니며 감시를 하고 추모식과 장례식 때도 저에게 마이크를 처음 잡아보았느냐고 하며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었고 영안실에 있을 때 조의금이 몇 십만원 있다며 저에게 돈 쓸일이 없느냐고 하기에 저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그때 조의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장례는 어떻게 치루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도 없으며 장례 후에 유서의 글을 새겨 비석을 하여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죽은 자식을 무슨 열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며, 기설이의 누나와 사위들은 유서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며 비석을 뽑아버리자고까지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가 자살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저로서는 자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판단이 서지 않고 오히려 전민련에 가입한 뒤 얼마 되지도 않고 대학도 못 다닌 사람을 사회부장을 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관계도 없는 서강대학에서 어떻게 제 마음대로 그곳 옥상에 올라가 분신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자살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유서가 과연 기설이가 쓴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문 : 그밖에 또 김기설의 죽음과 장례 등에 관련하여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말하여 주십시오.

답 : 첫째 기설이가 죽기 전날인 5. 7. 밤 늦게 저의 집으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여 기설이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다며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기설이가 집에 가지 못한다며 대신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누구나 기설이는 어디에 있는나라고 물었으나 자기도 모른다고 한 것이 전민련 사람들끼리 기설이가 죽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둘째로 장례를 치루고 나서 한 열흘쯤 후에 웬 여자가 저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비석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제가 마땅치 않게 전화를 받아 기설이를 우리가 죽였다고 의심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고 또 그 무렵 둘째 사위 김용기에게 전민련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전화를 하여 우리가 장례도 치루고 협조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전민련이 곤란한 입장에 있다며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며 또 안양에 있는 기설이의 큰누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민련 사람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열사인데 왜 글씨가 같다 틀리다 쭈셔놓고 개죽음을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귀찮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설이가 죽은 경위에 대하여 의심이 갑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제가 기설이가 죽은 후 기설이가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가족가방과 책이나 노트 등을 달라고 하여도 찾을 수가 없는데 기설이가 죽기 전에도 그 노트를 보면 제가 보기에 상식에 안 맞는 내용들이 있고 무슨 출판사를 다닌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곳도 알려주지 않아 제가 기설이에게 네가 도대체 무엇

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꼭 빨갱이 수작이 아니냐고 나 무란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 장례를 치루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단체 때문에 우리 기설이가 자살을 하였던, 죽임을 당하였던 결국은 이렇게 죽고보니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정열

1991. 8. 12

서울지방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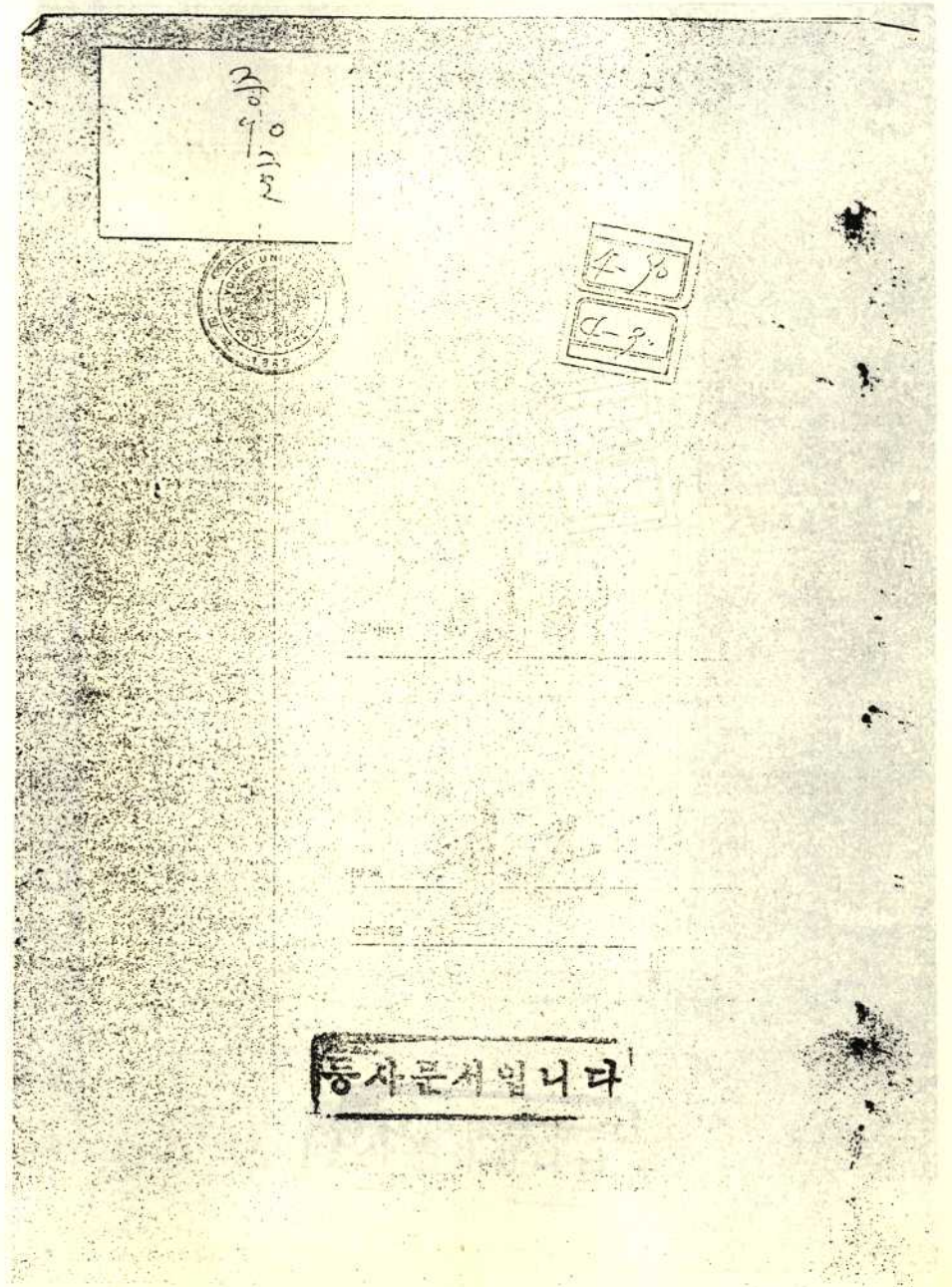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장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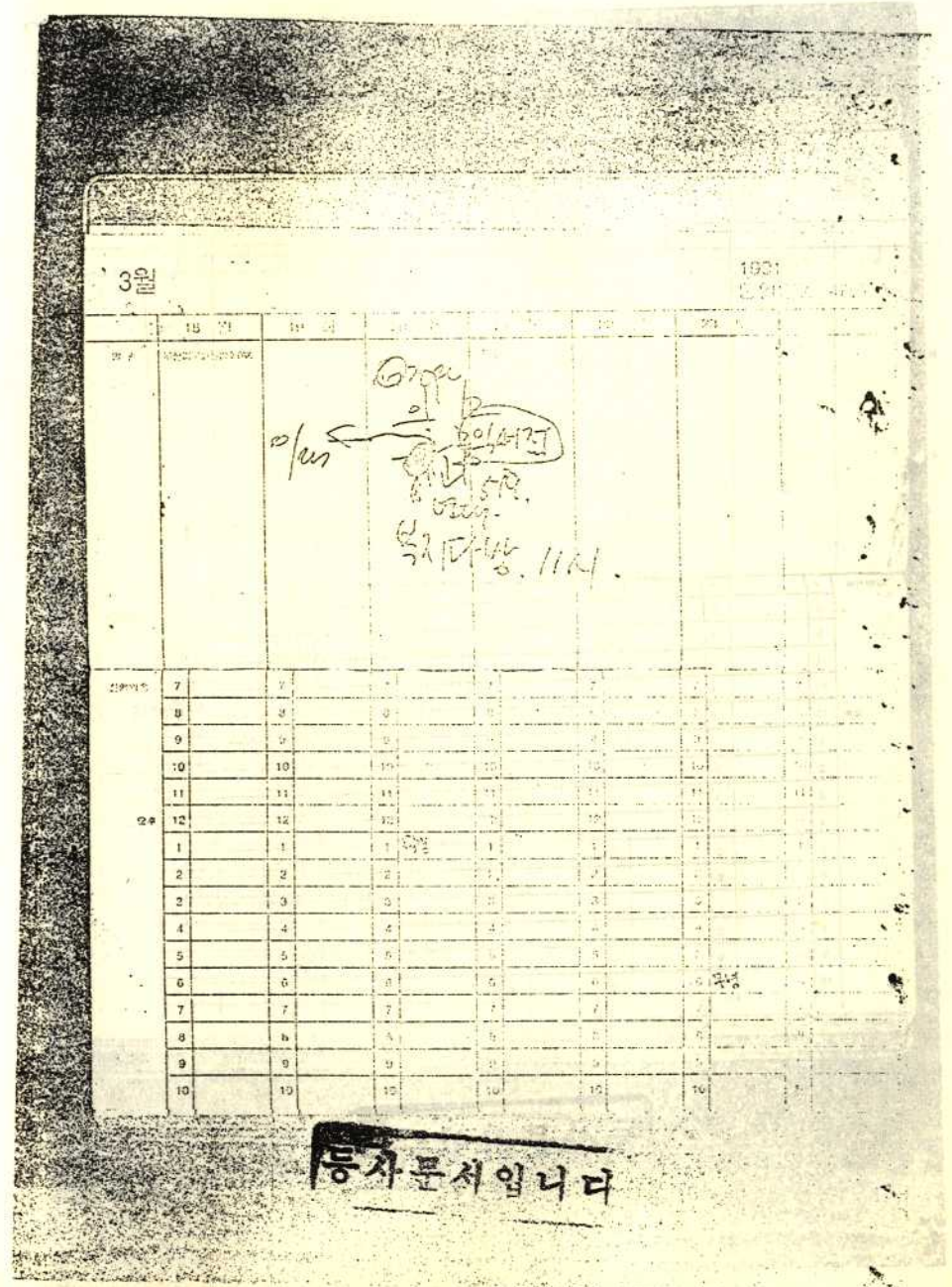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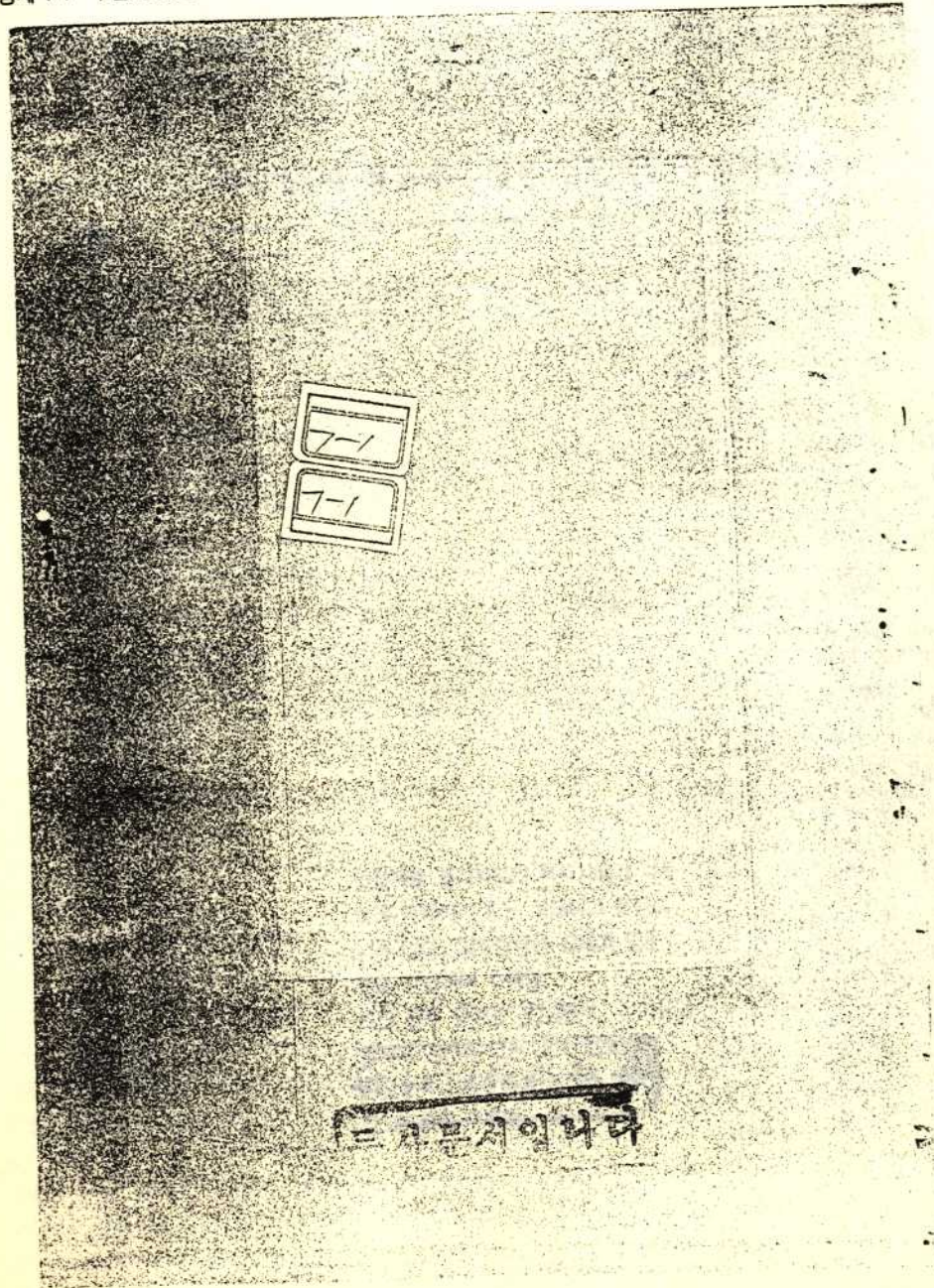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검찰제출 필적자료

검찰제출 필적자료의 복사상태가 너무
흐려 판독하기 힘든 상태이고 분량도
너무 많아, 일부항목은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하여 수록함.
또한 일부 필적은 강기훈이나 김기철의
필적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으나,
진술조서나 재판중에 언급된 필적은
참고자료로 수록함.

증거 4-90 영어노트 표지(강기훈)



증제 7-1 수첩(홍성은)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동사문서일기다

4월/5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동사문서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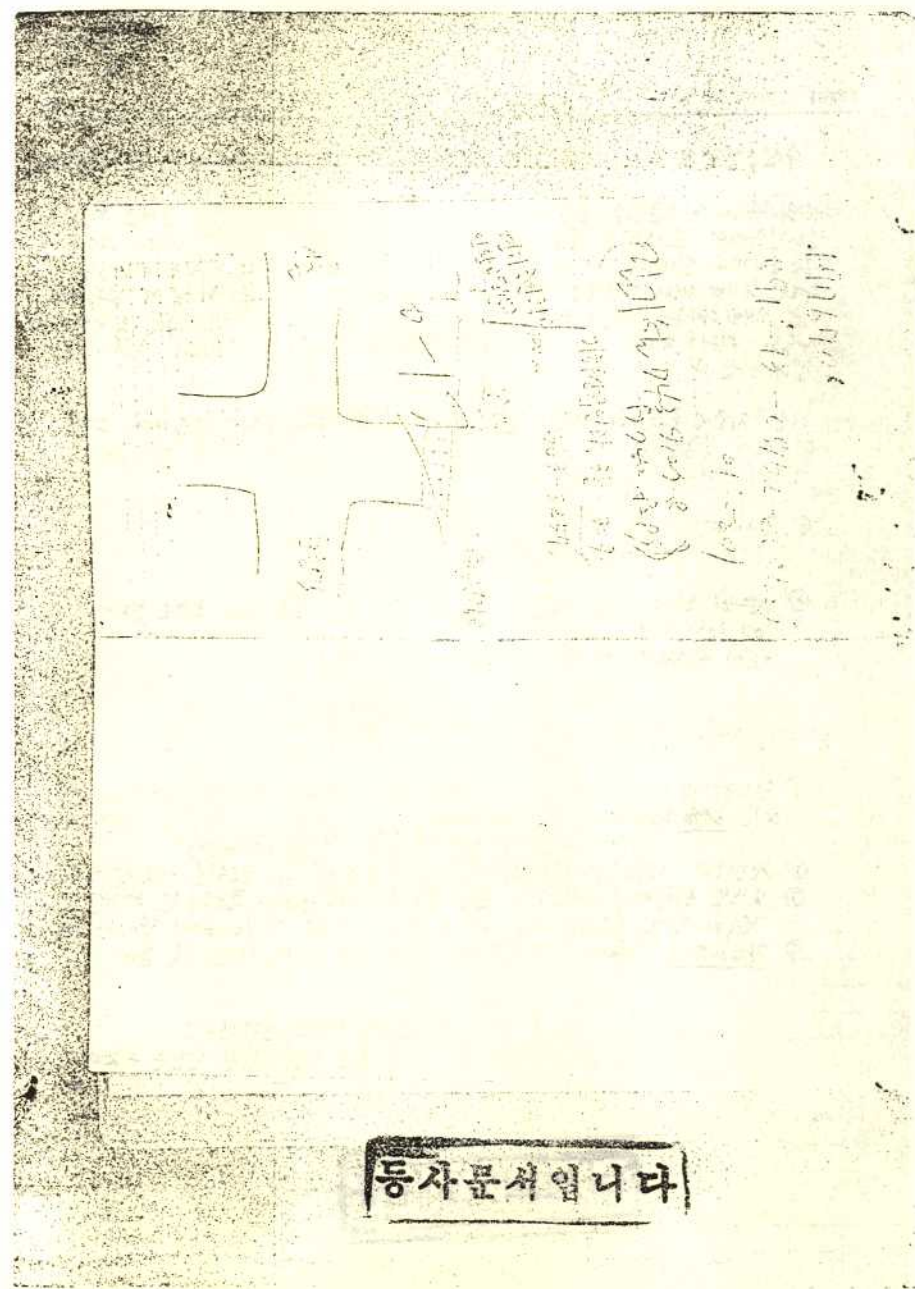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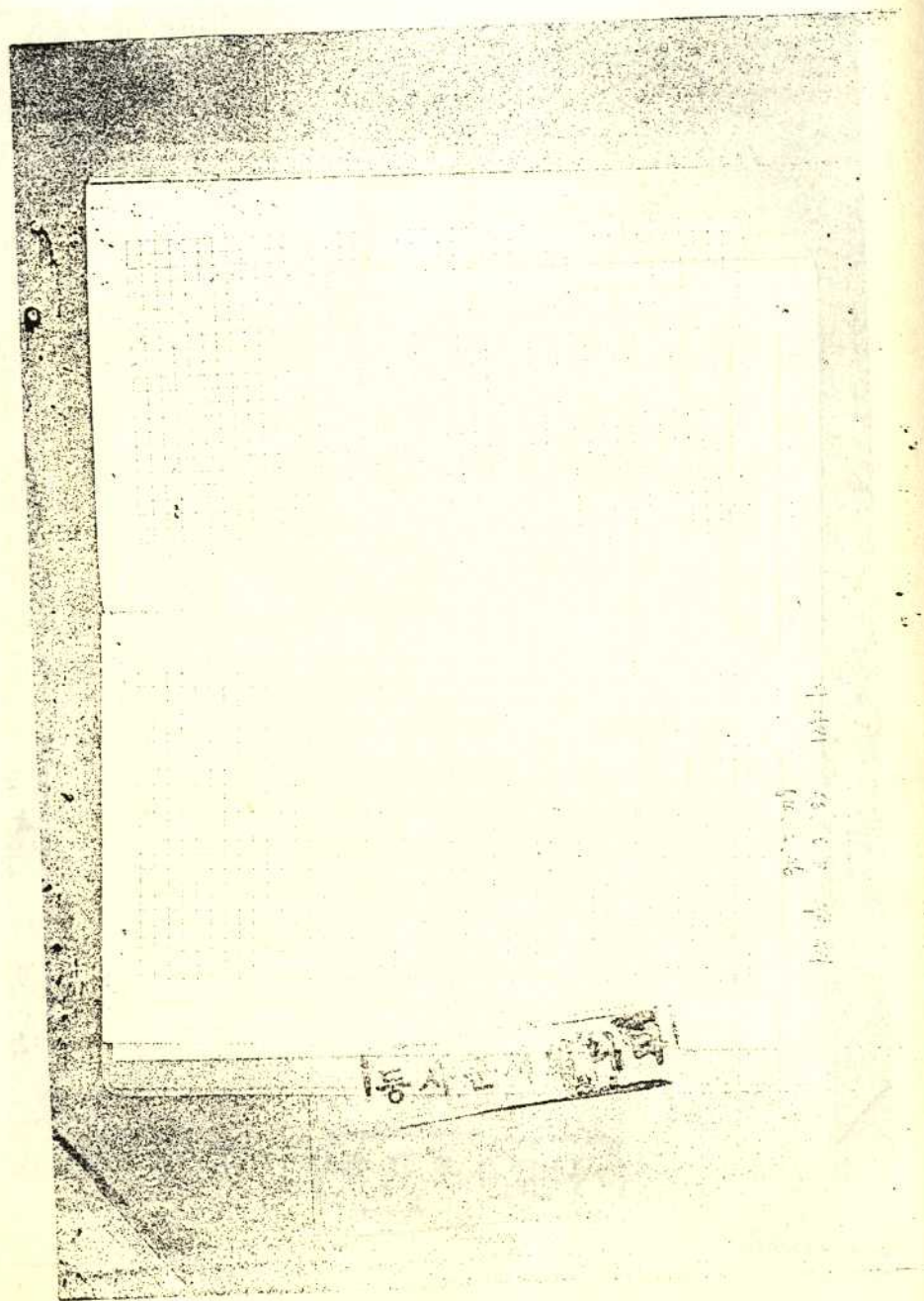
5월 1961년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등사문서임다다

수첩 (홍성은)

등사문서임다다



증제 9-1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18번가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대회의사록에 정세문건을 첨부하는 등...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정세문건에...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주요한 문건에...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지금 대회의사록을...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사들여...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장의 하신...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그런 지방의...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원본...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① T...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②...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①...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②...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③...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 ④...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정상에... (이것이 증거라 해서 함의 뜻 이신입니다)
 -동리 명훈-

등사본서입니다

증제 9-6 수강신청서(강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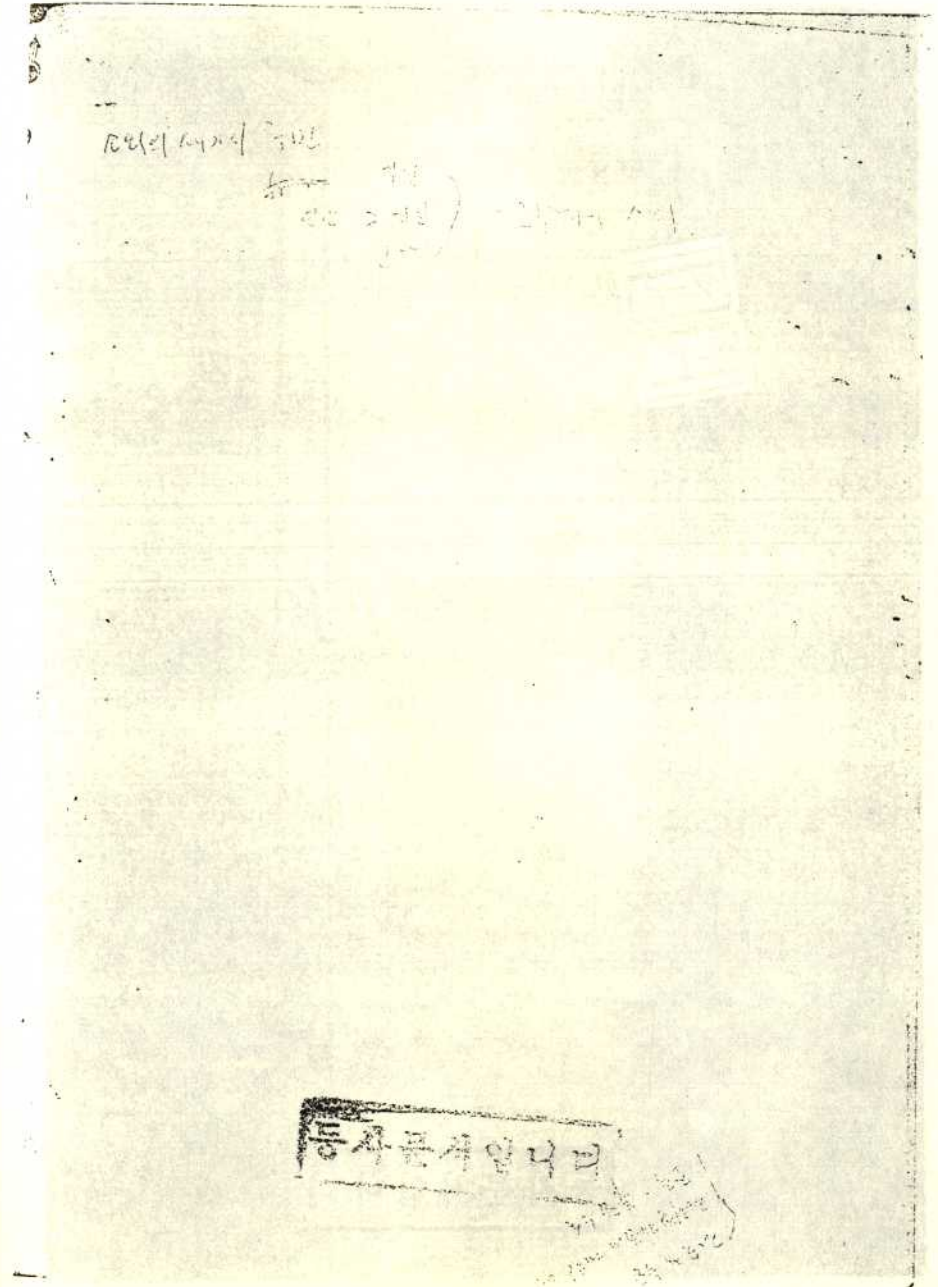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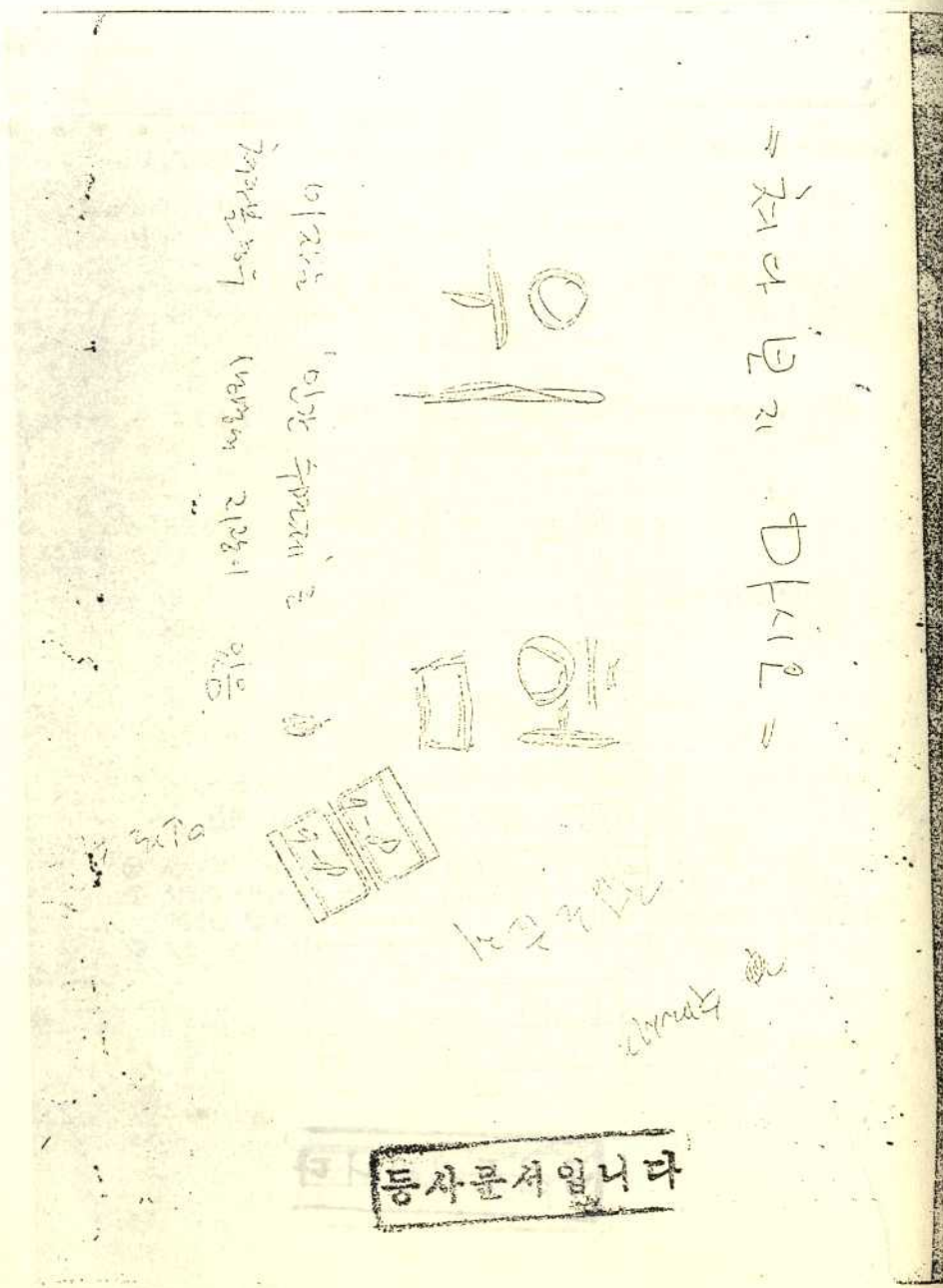
수강신청서

분리 대학 학과와
198학년도 3학년 1학기
성명 강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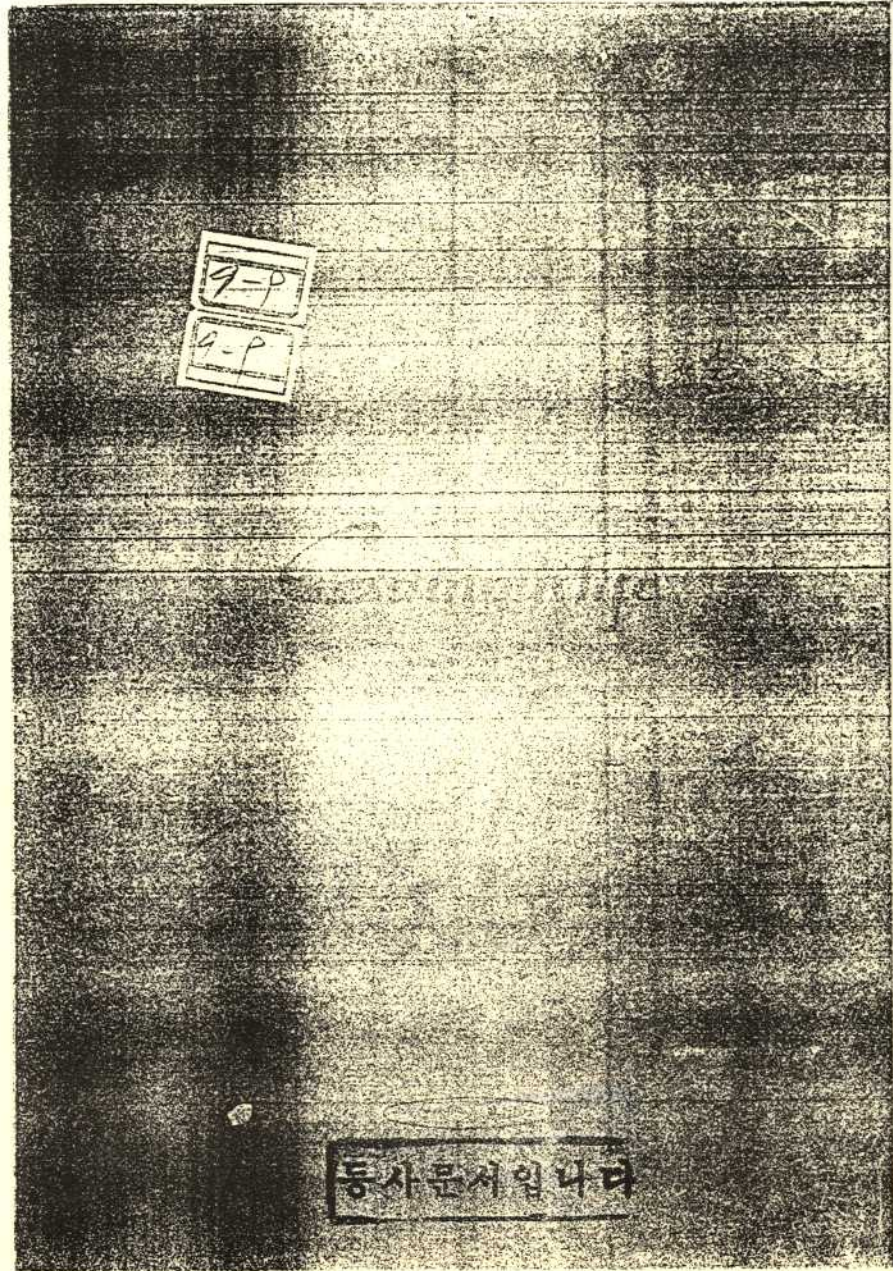
학 과	교과 번호	교과 명	학 점	비 고	비 고
3	AF3	1 0 1 3			
3	AF3	1 3 0 1 3			
4	AF3	2 1 0 1 3			
4	AF3	2 5 0 1 2			
4	AF3	2 2 0 1 2			
4	AF3	2 3 0 1 1			
2	D2	1 0 3 0 5 5			
1	45	1 0 3 0 2 2			
2	DZ	1 0 3 0 7 3			

등사본서입니다

증제 9-8 낙서(강기훈)



증제 9-9 화학노트(강기훈, 일부수복)



Quantum chemistry

Introduction

Quantum mechanics

Quantum chemistry

Origins of the quantum theory

Planck's radiation law

Wien's displacement law

Stefan-Boltzmann law

Rayleigh-Jeans law

Planck oscillator

$E = nh\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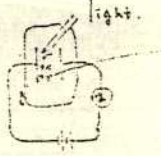
classical oscillator


동사문서입니다

Oscillator는 진동기
변압기 (보통 220V)

name _____

$E_k = \frac{1}{2}mv^2$

* Quantum theory
 빛은 에너지 덩어리 (광자)로 되어 있다.
 Oscillator는 빛을 만들어 내는 장치이다 (보통 220V)
 변압기 (보통 220V)
 (2) photo electric effect


(3) emission effect


(4) atomic spectra
 $\bar{\nu} = R \left(\frac{1}{n_1^2} - \frac{1}{n_2^2} \right)$
 Rydberg constant
 $\bar{\nu}$ = wave number
 $n_1 = 1$ Lyman
 $n_1 = 2$ Balmer
 $n_1 = 3$ Paschen
 $n_1 = 4$ Brackett
 $n_1 = 5$ Pfund
 o theoretical spectrum
 Bohr et al.

1.9 세가지 시료에 있어서 x의 y의 조성비는
 $\frac{x}{y} = \frac{4.31}{11.69} = \frac{35.9}{64.1} = \frac{0.118}{1.282} \approx 0.06$ 으로 일정함
 그러므로 일정 조성비의 법칙을 만족시킴

P. 33

예제 2-2 Si 30.5g 은 몇 그램 원자량?

$30.5g \times \frac{12\text{그램원자량 S}}{28.1} = 1.09 \text{그램 원자량}$ \therefore Si 30.5g = Si 1.09그램원자량

예제 2-3 2.55 그램 원자량 Cu는 몇 그램에 해당하는가?

Cu 12그램원자량 = Cu 63.5g
 Cu 2.55 그램원자량 = Cu x g
 $\therefore \frac{63.5g}{12\text{그램원자량}} \times 2.55 \text{그램원자량} = 16.2g \text{ Cu}$

예제 2-4 화합물 $CaCl_2$ 에서 Cl 2.50 그램원자량과 결합하는 Ca는 몇 그램 원자량?
 $CaCl_2$ 에서 12그램원자량의 Ca가 2그램원자량의 Cl과 결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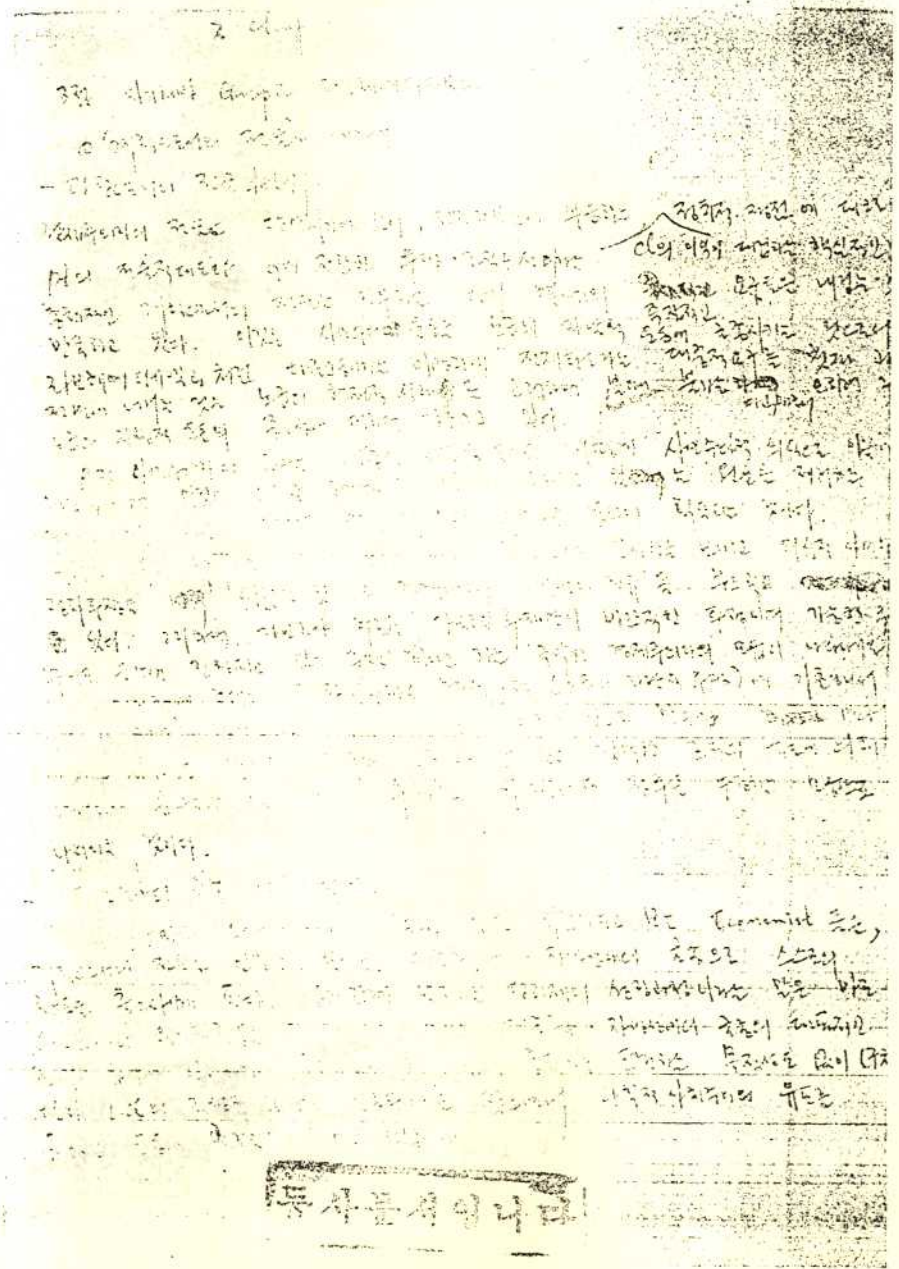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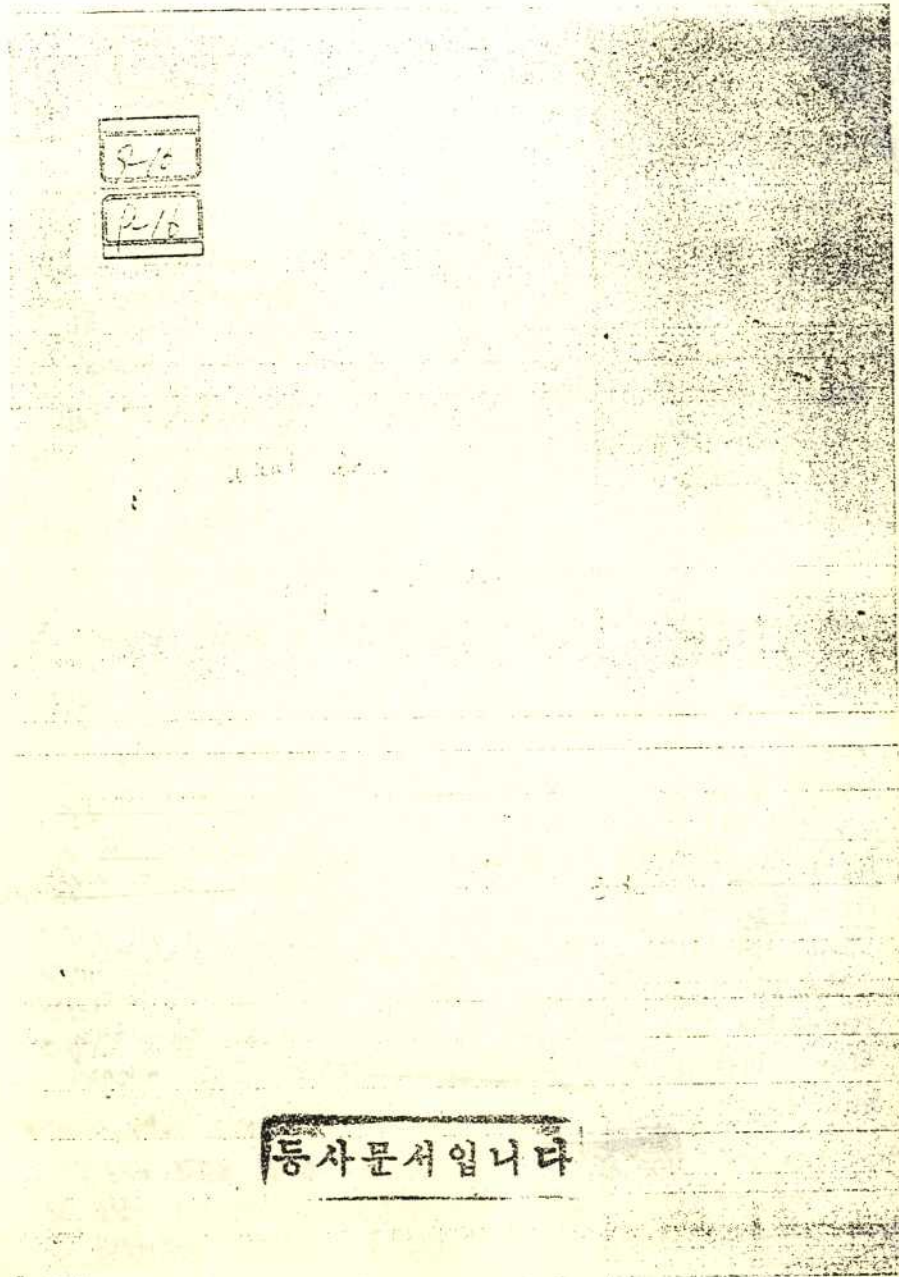
Cl 2.50 그램원자량 $\times \frac{12\text{그램원자량 Ca}}{2\text{그램원자량 Cl}} = 1.25 \text{그램원자량 Ca}$

예제 2-5 화합물 $CaCl_2$ 를 만드려고 한다 41.5g의 Cl의 반응시켜서 Ca의 g수를 산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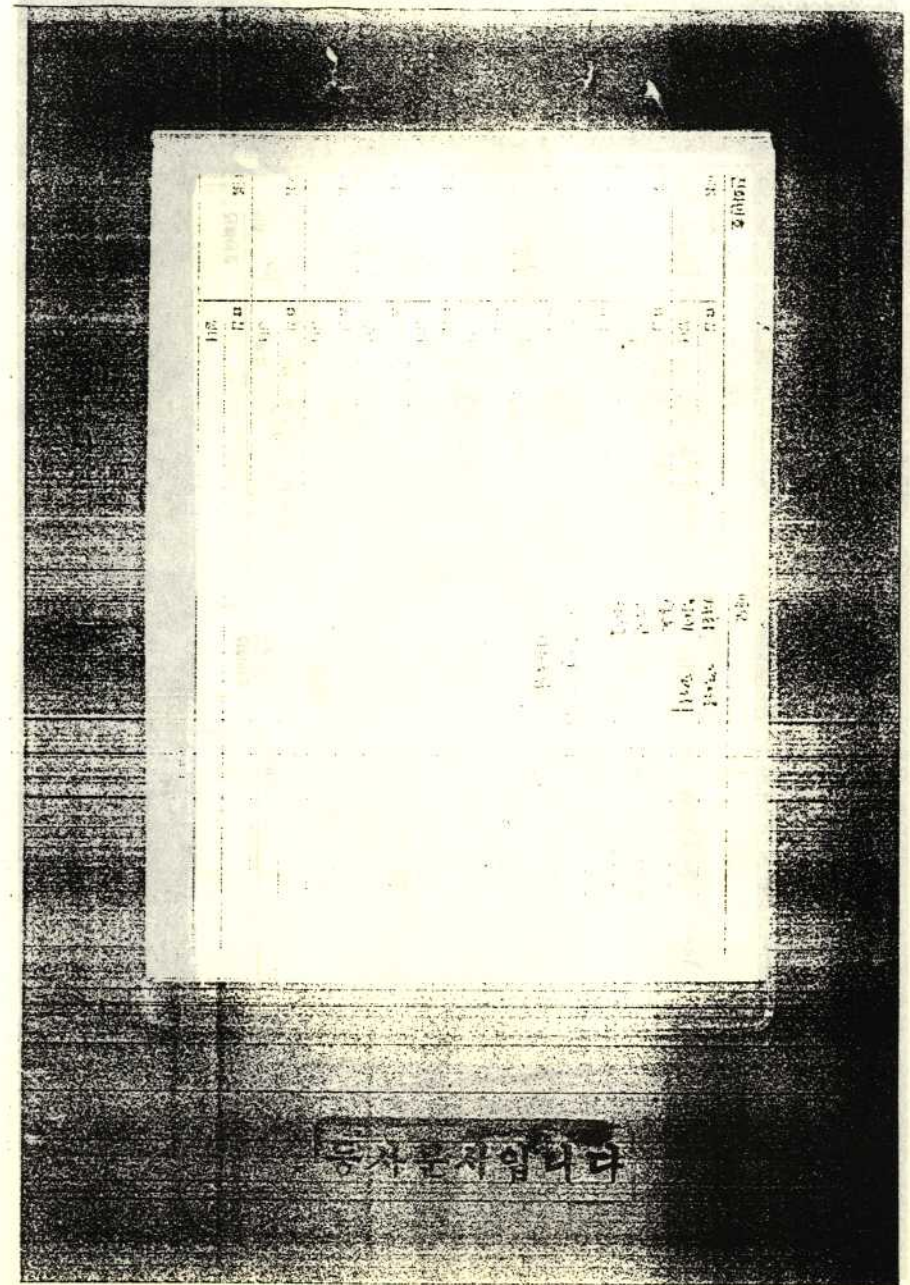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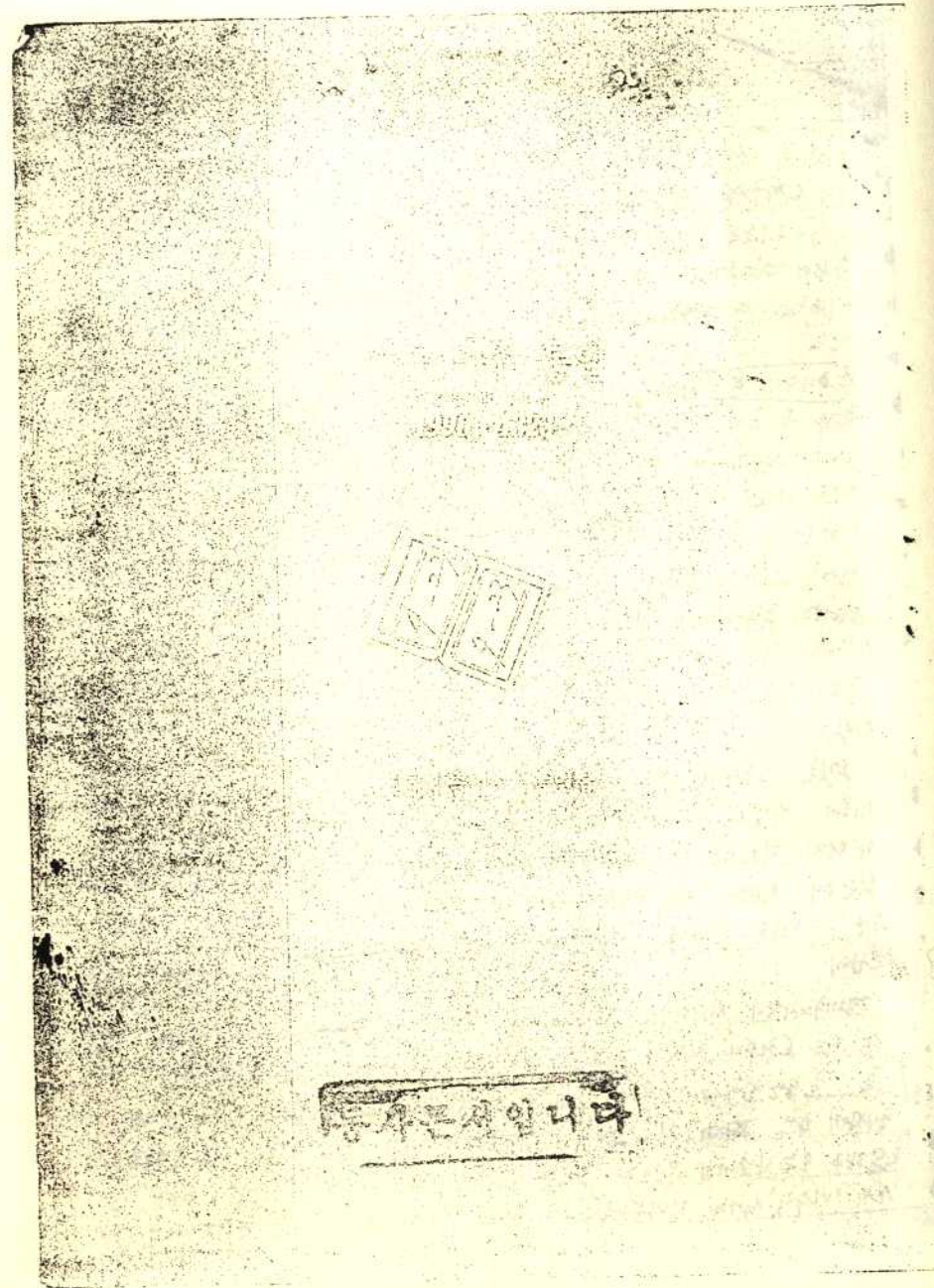
1 그램원자량 Ca ~ 2그램원자량 Cl
 " " Cl = 35.5g Cl
 " " Ca = 40.1g Ca
 $41.5g \text{ (Cl)} \times \frac{12\text{그램원자량 Ca}}{35.5g \text{ Cl}} = 1.19 \text{그램원자량 Cl}$
 $1.19 \text{그램원자량 Cl} \times \frac{12\text{그램원자량 Ca}}{2\text{그램원자량 Cl}} = 0.584 \text{그램원자량 Ca}$
 $0.584 \text{그램원자량 Ca} \times \frac{40.1g \text{ Ca}}{1\text{그램원자량 Ca}} = 23.4g \text{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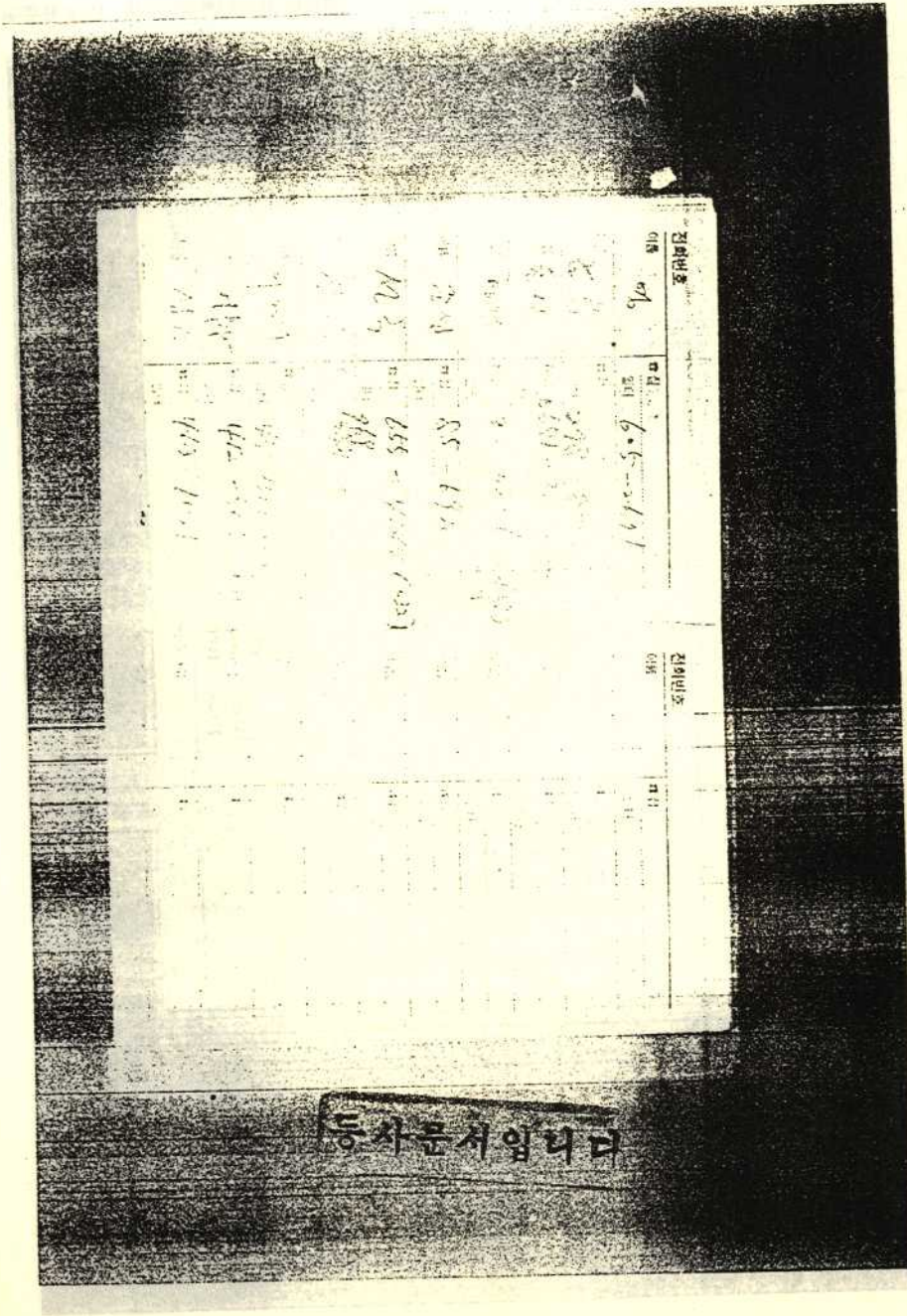
등사분석입니다

증제 9-16 What is (강기훈, 일부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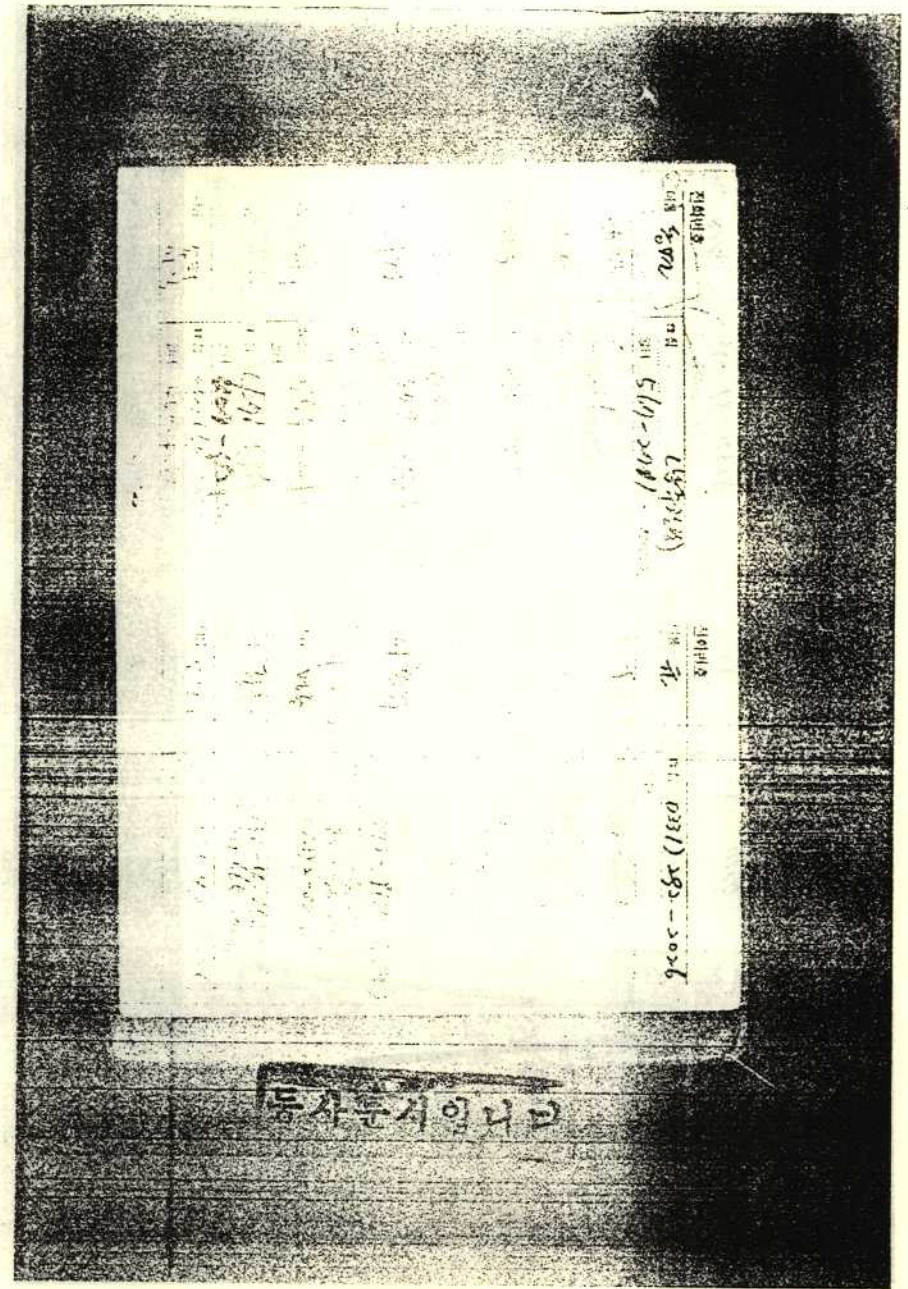


증제 9-23 자주민주통일수첩(강기훈)





동사문서입니다



동사문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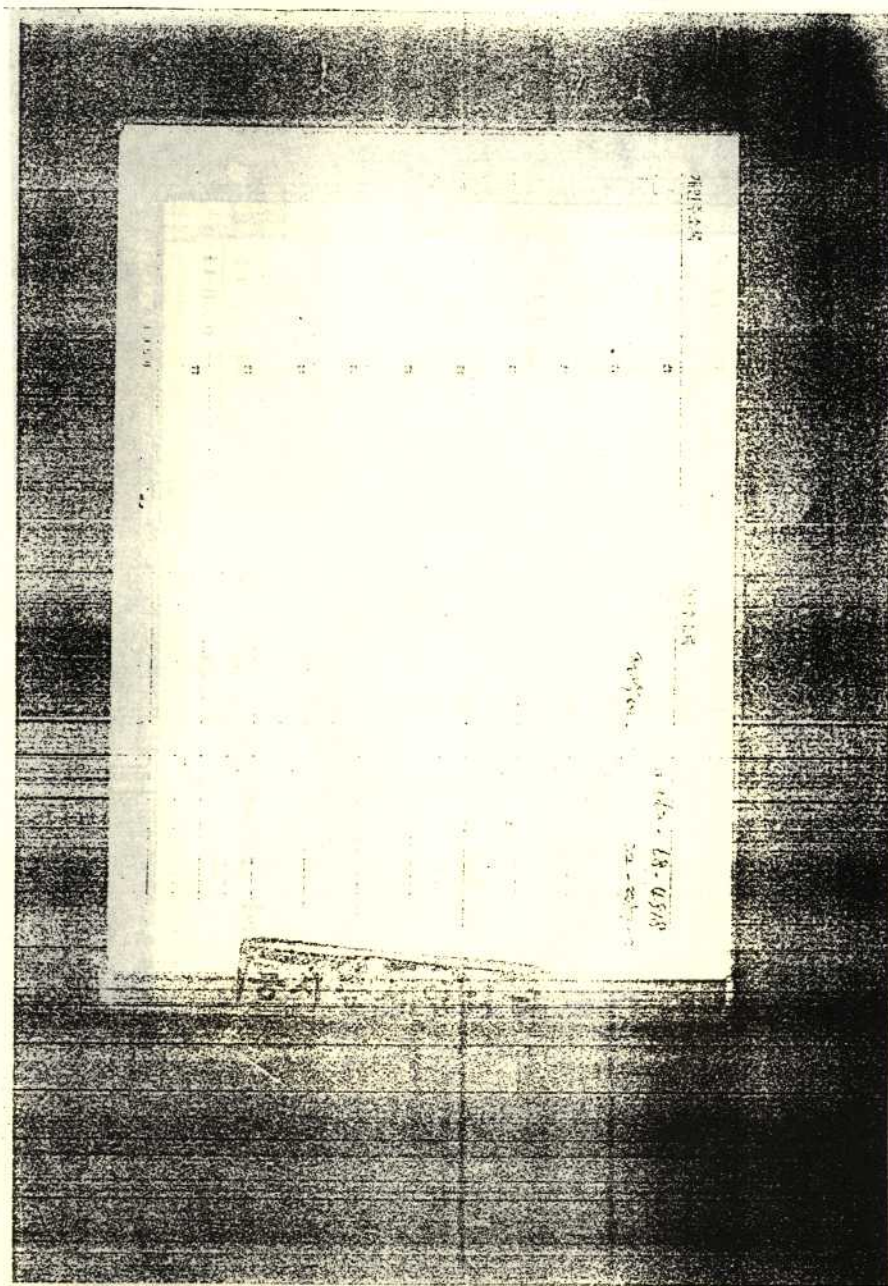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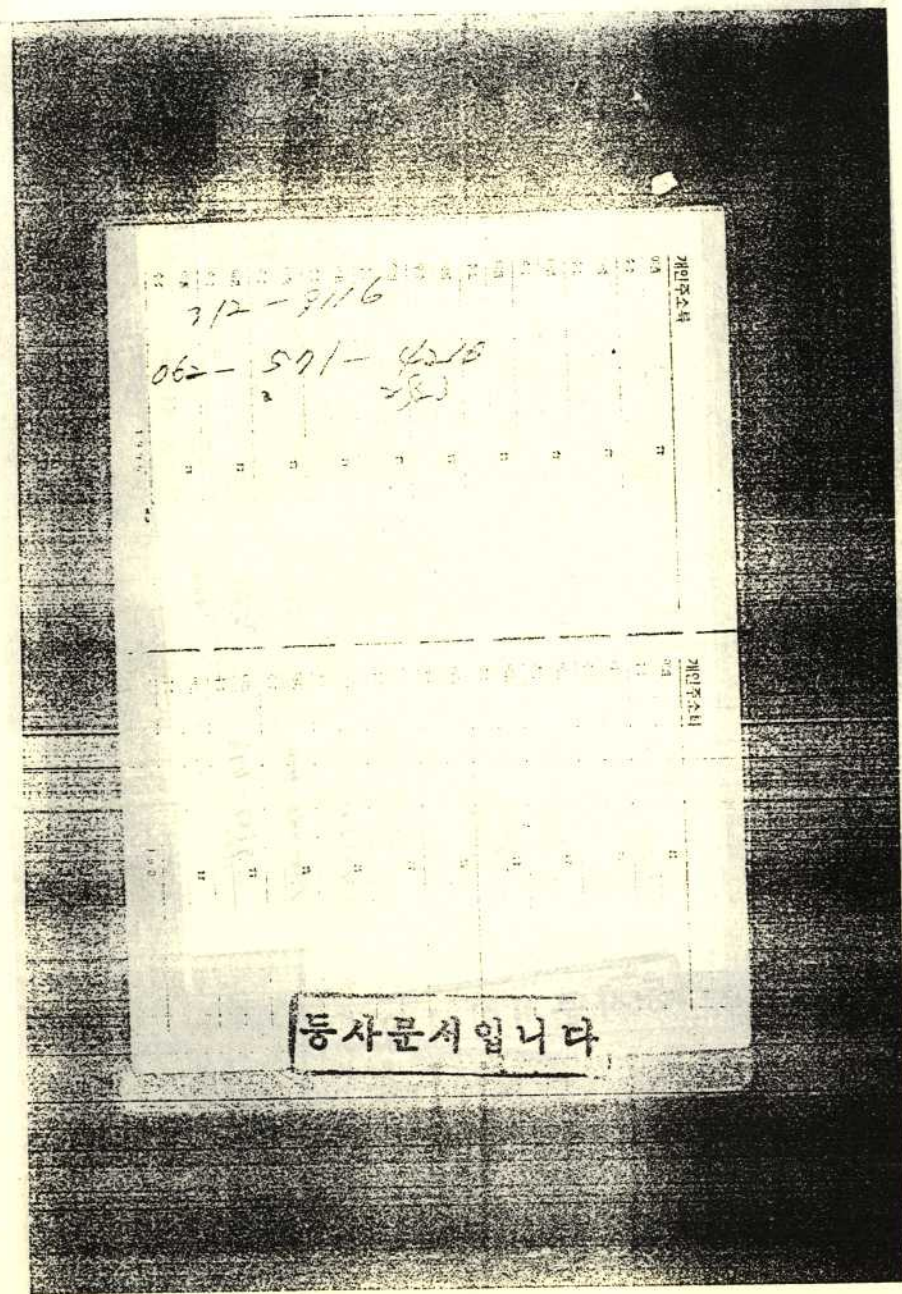
670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검찰계출 필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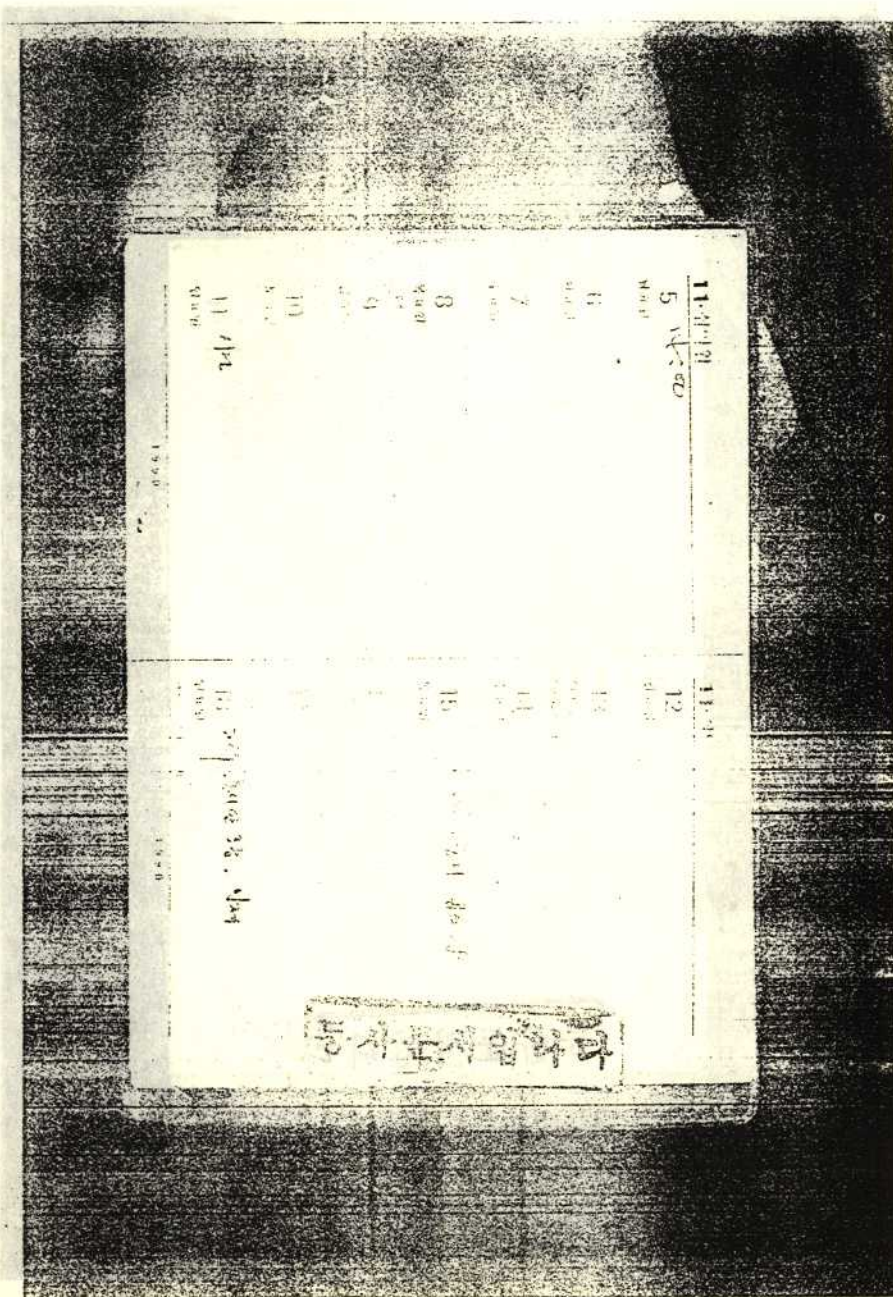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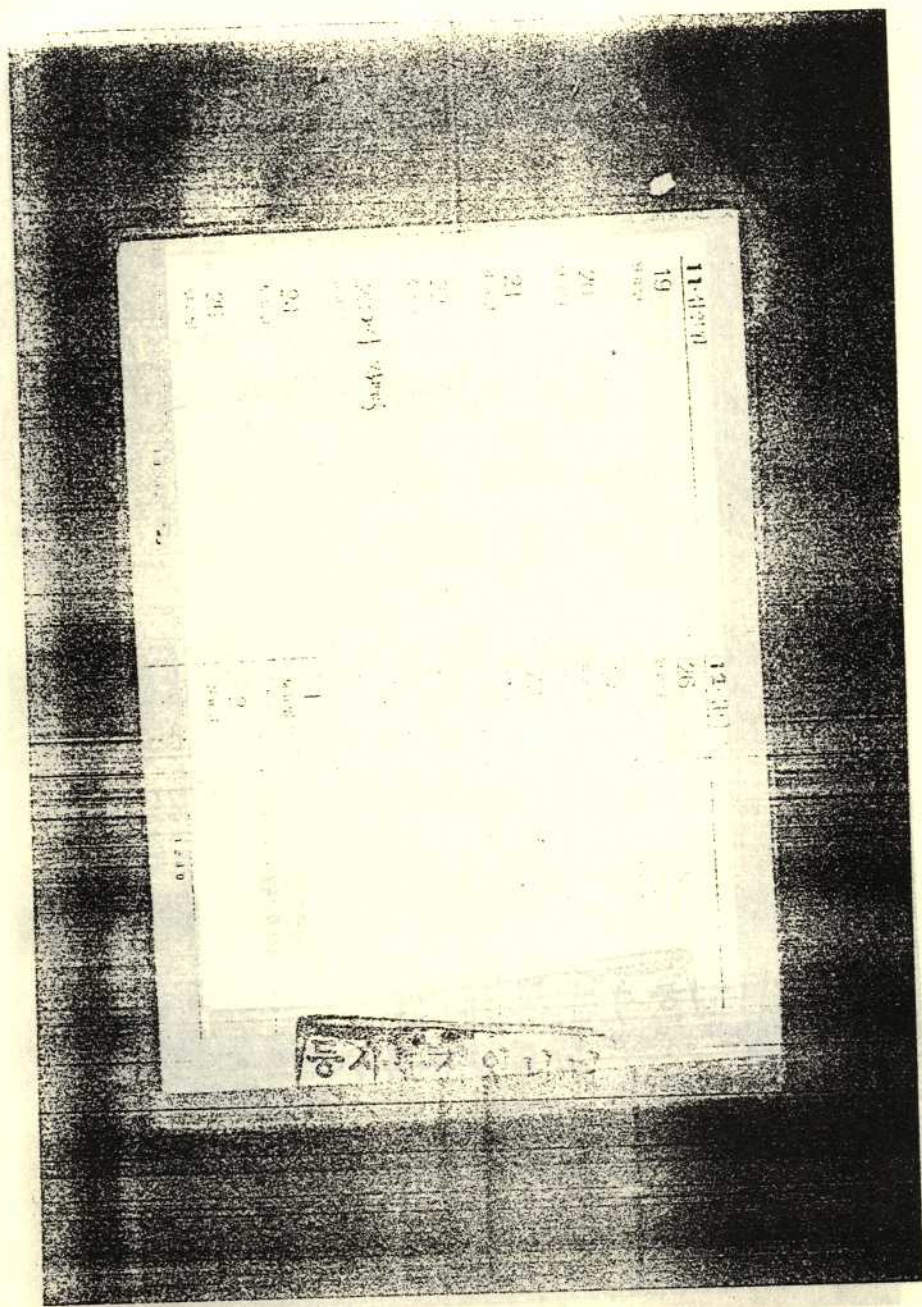
등사분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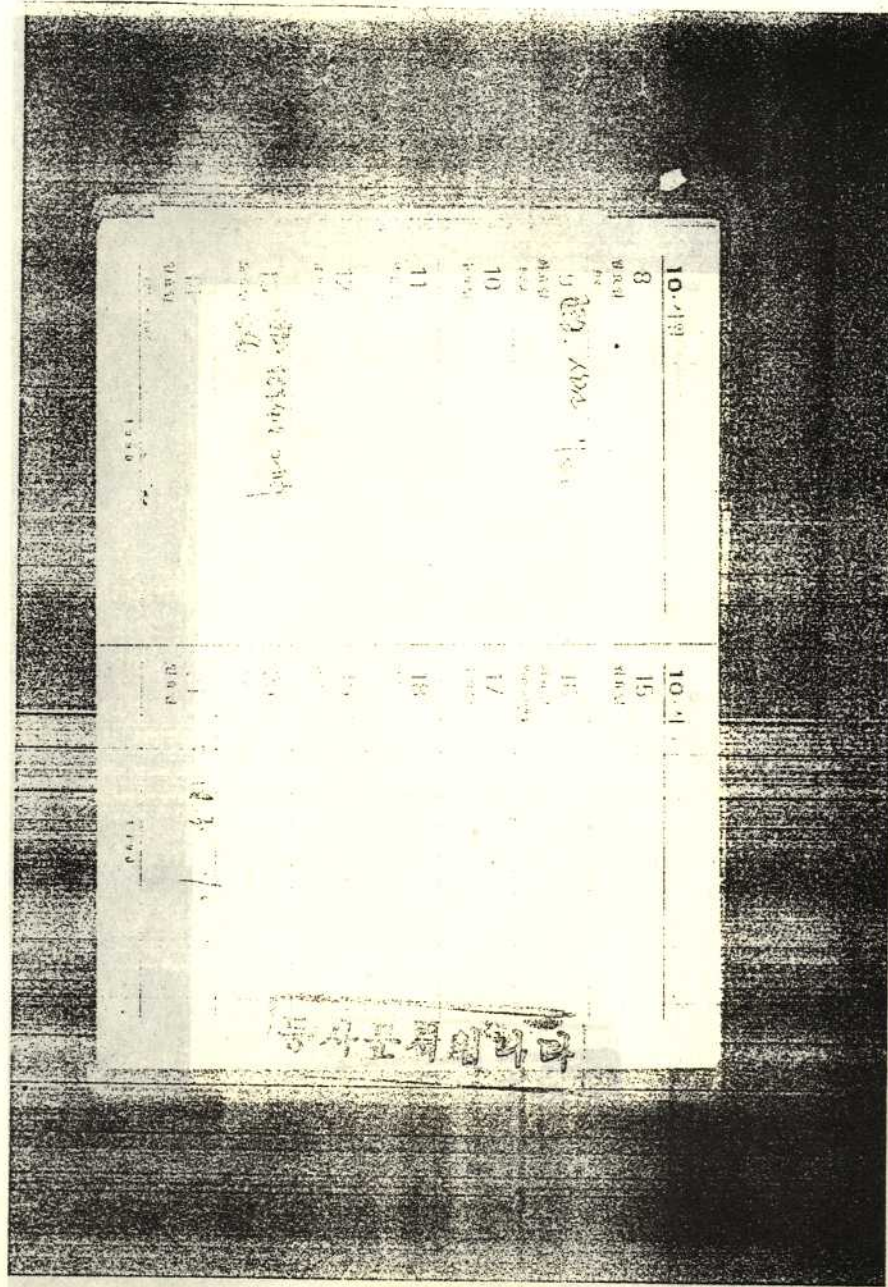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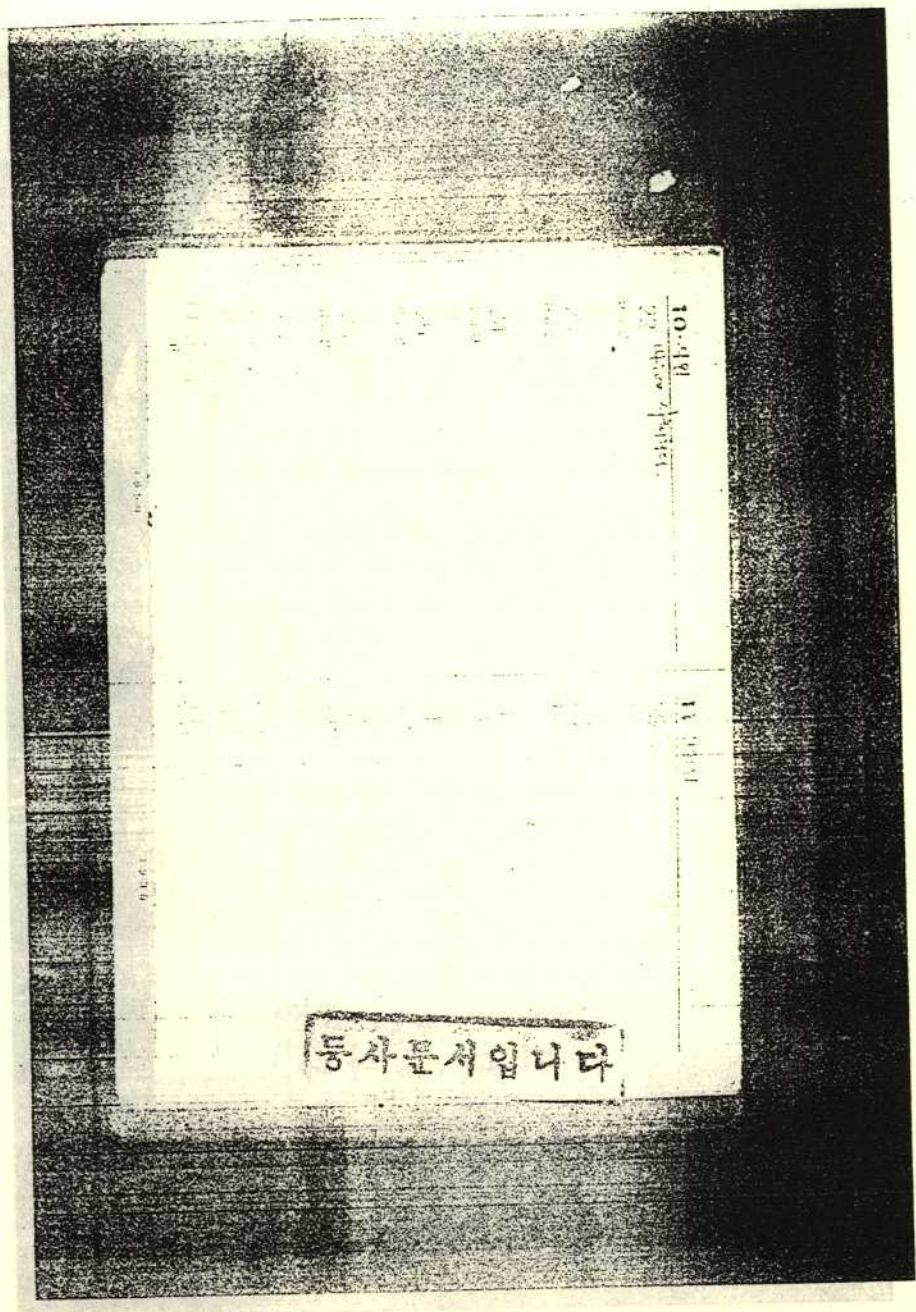
이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지	정지	서울시 중구	02-000-1234
김철	김철	서울시 강남구	02-000-5678
박영	박영	서울시 서대문구	02-000-9012
이영	이영	서울시 동대문구	02-000-3456
정지	정지	서울시 은평구	02-000-7890
정지	정지	서울시 마포구	02-000-2345
정지	정지	서울시 용산구	02-000-6789
정지	정지	서울시 강서구	02-000-0123
정지	정지	서울시 강북구	02-000-4567
정지	정지	서울시 강동구	02-000-8901
정지	정지	서울시 강진구	02-000-2345
정지	정지	서울시 강서구	02-000-6789
정지	정지	서울시 강북구	02-000-0123
정지	정지	서울시 강동구	02-000-4567
정지	정지	서울시 강진구	02-000-8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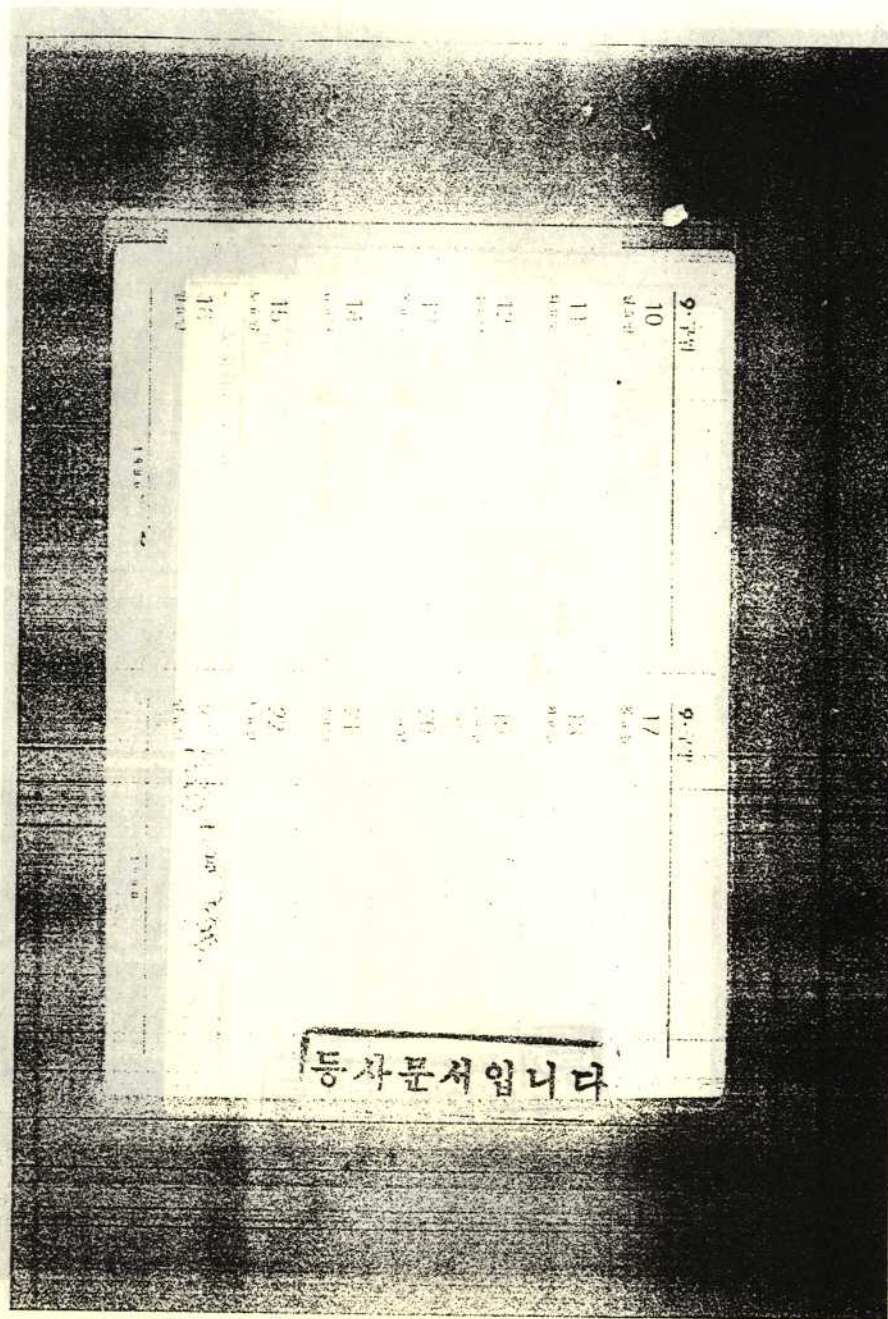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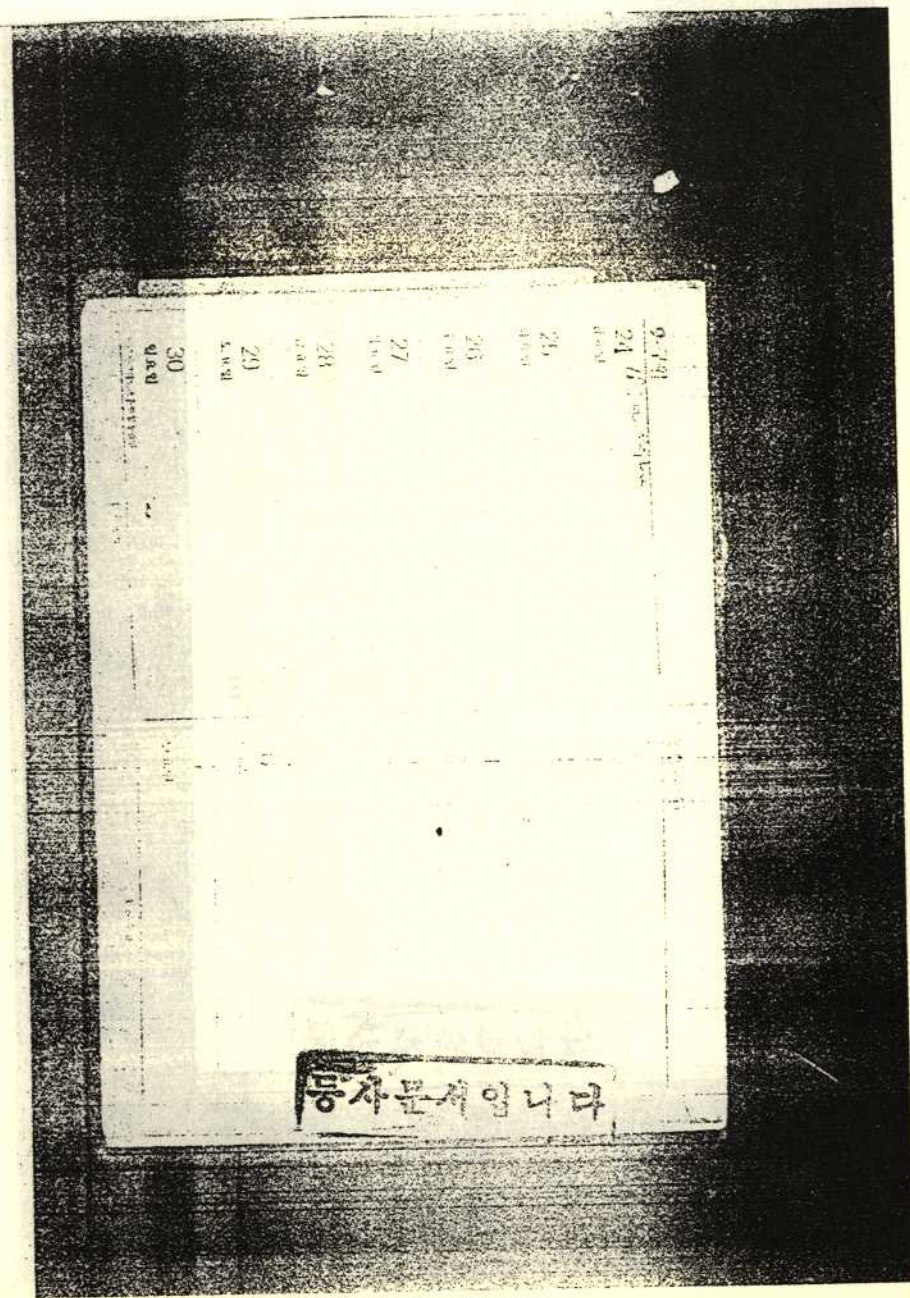
등사분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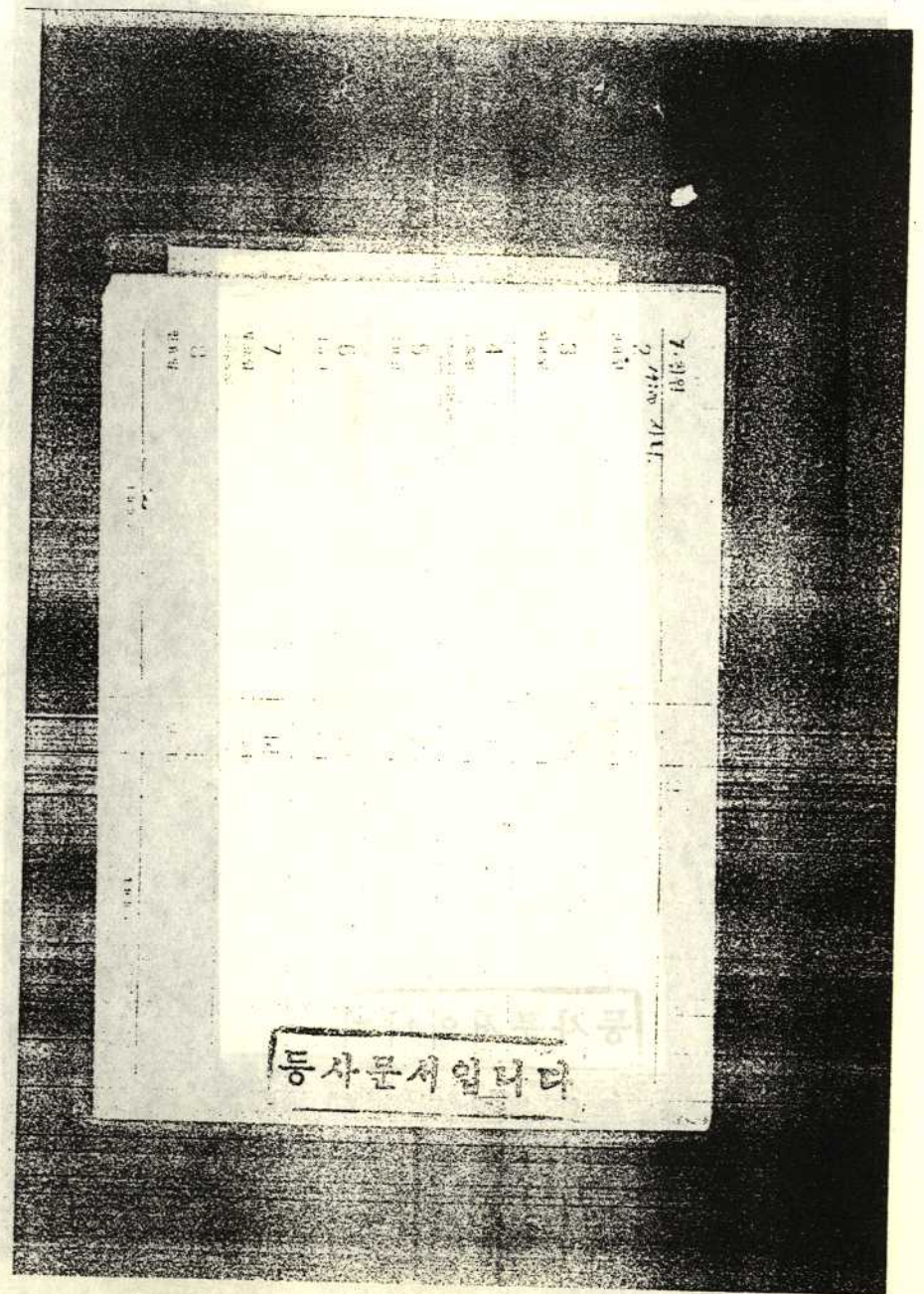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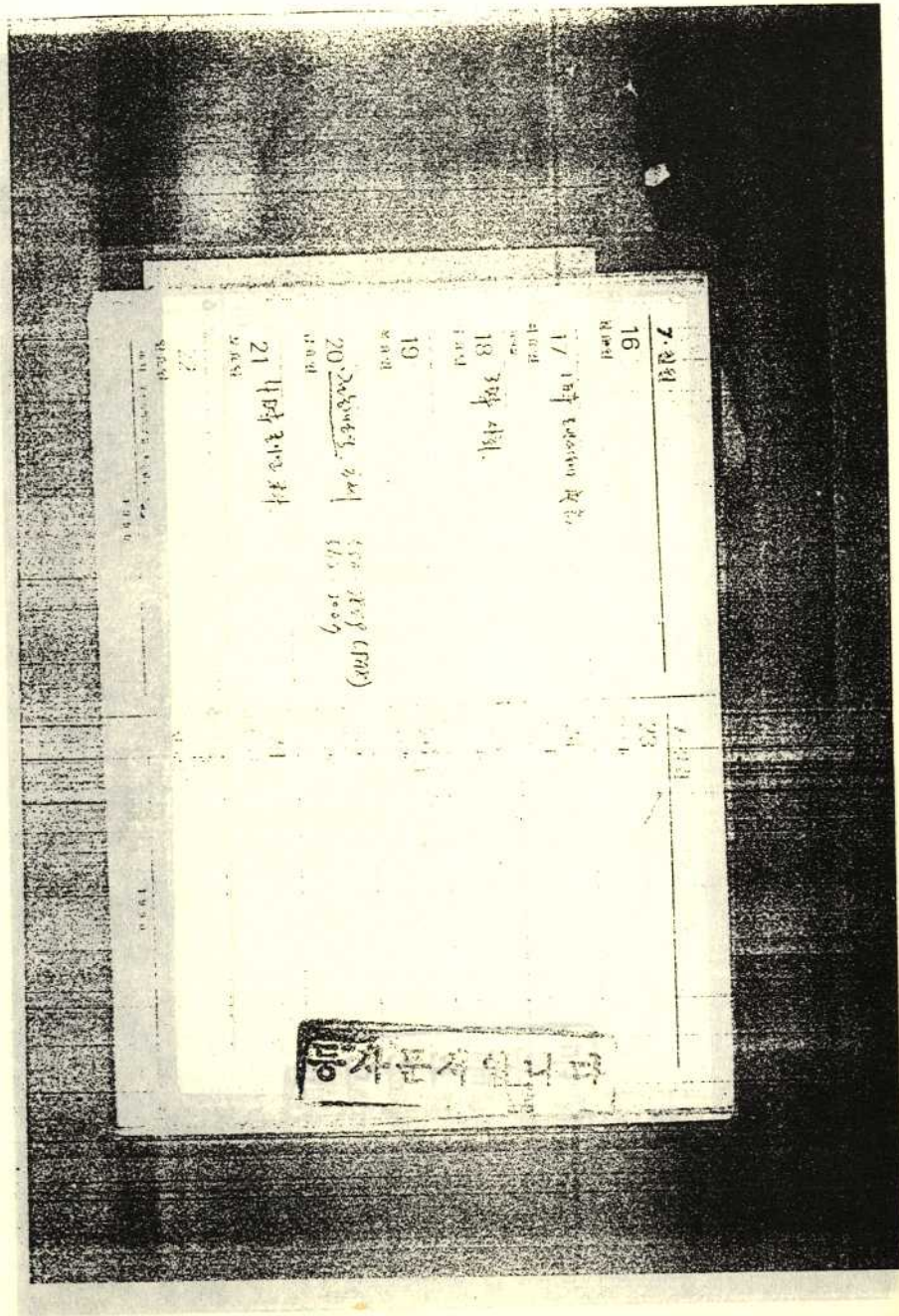
이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지	정지	서울시 중구	02-000-1234
김철	김철	서울시 강남구	02-000-5678
박영	박영	서울시 서대문구	02-000-9012
이영	이영	서울시 동대문구	02-000-3456
정지	정지	서울시 은평구	02-000-7890
정지	정지	서울시 마포구	02-000-2345
정지	정지	서울시 용산구	02-000-6789
정지	정지	서울시 강서구	02-000-0123
정지	정지	서울시 강북구	02-000-4567
정지	정지	서울시 강동구	02-000-8901
정지	정지	서울시 강진구	02-000-2345
정지	정지	서울시 강서구	02-000-6789
정지	정지	서울시 강북구	02-000-0123
정지	정지	서울시 강동구	02-000-4567
정지	정지	서울시 강진구	02-000-8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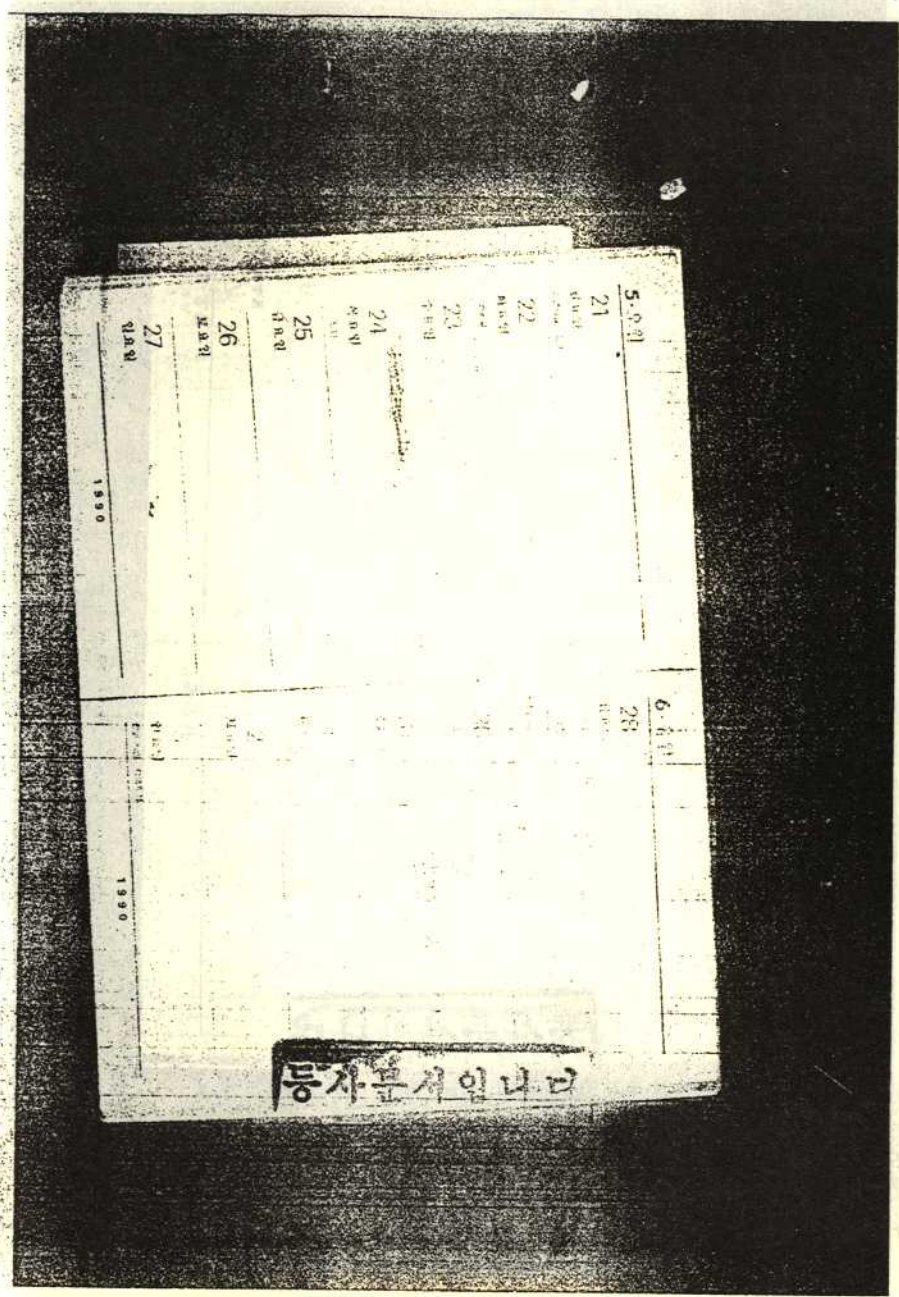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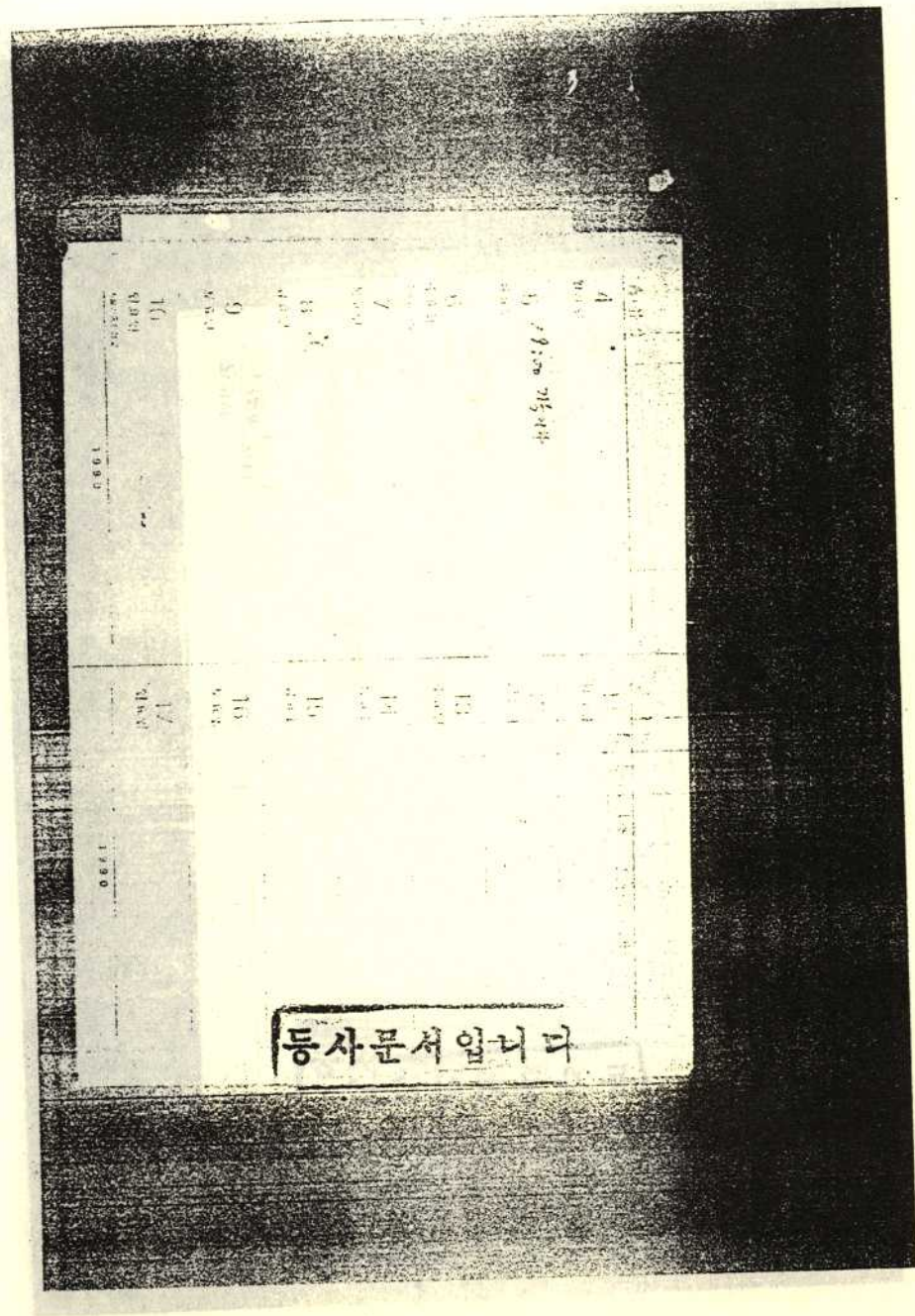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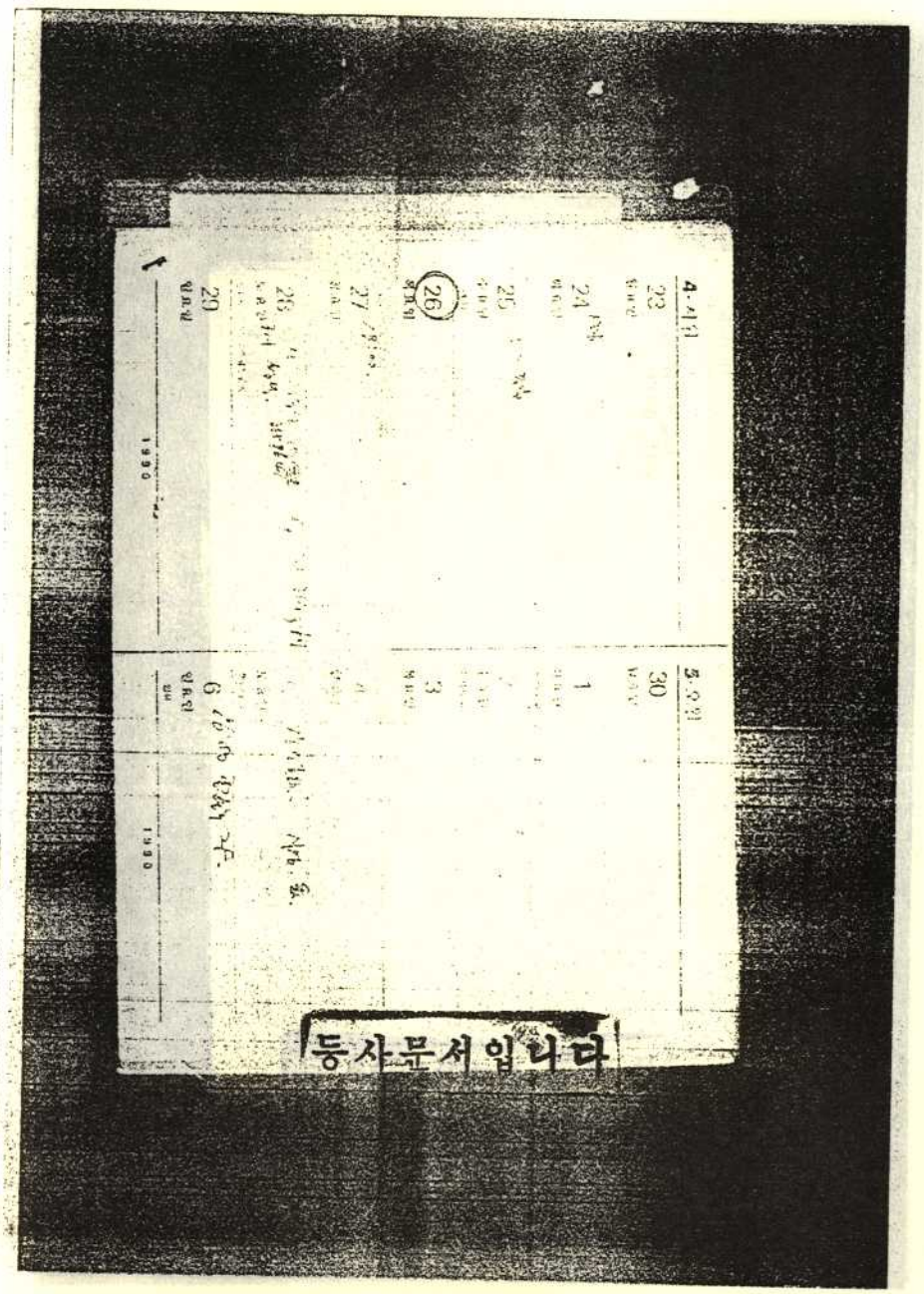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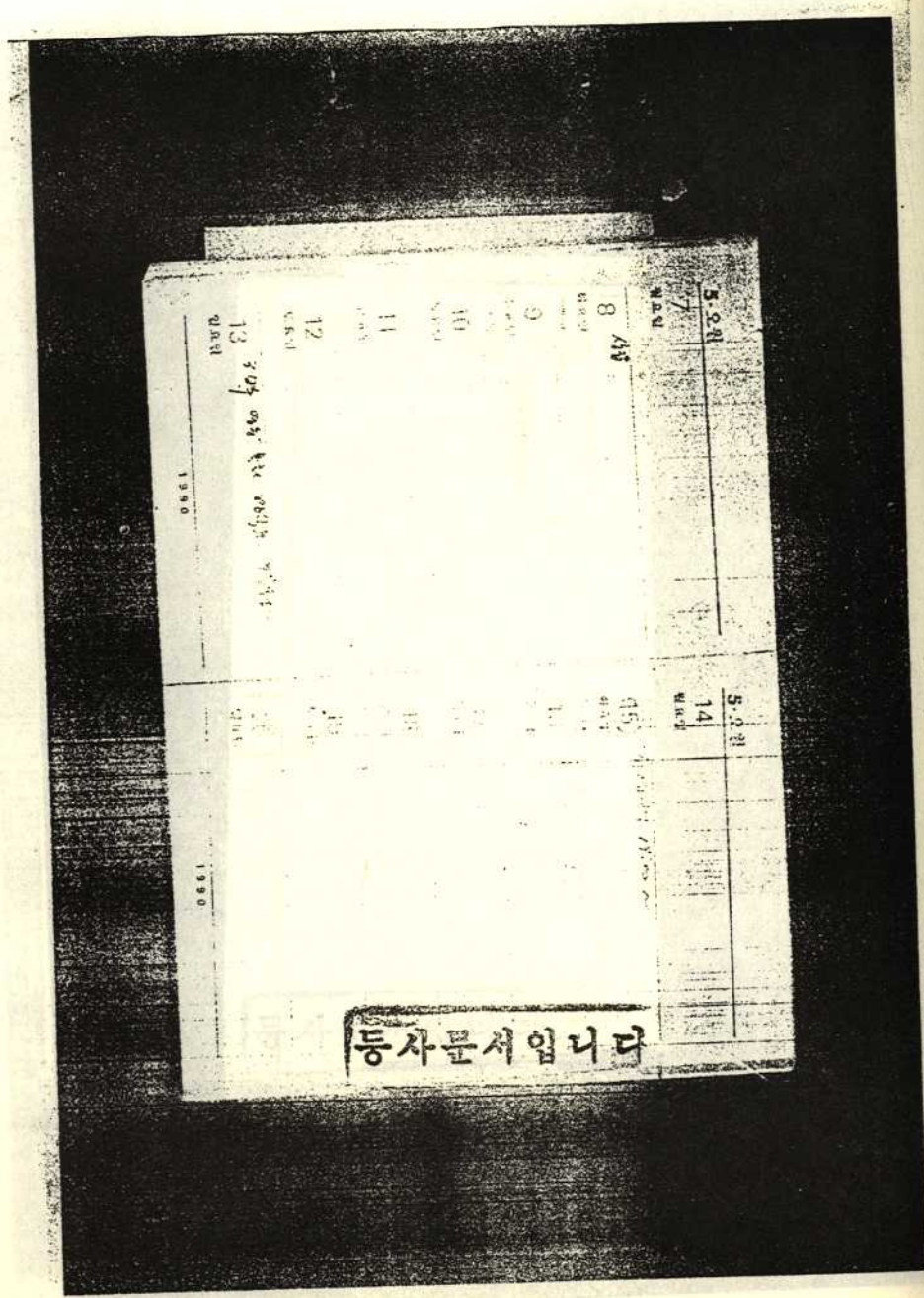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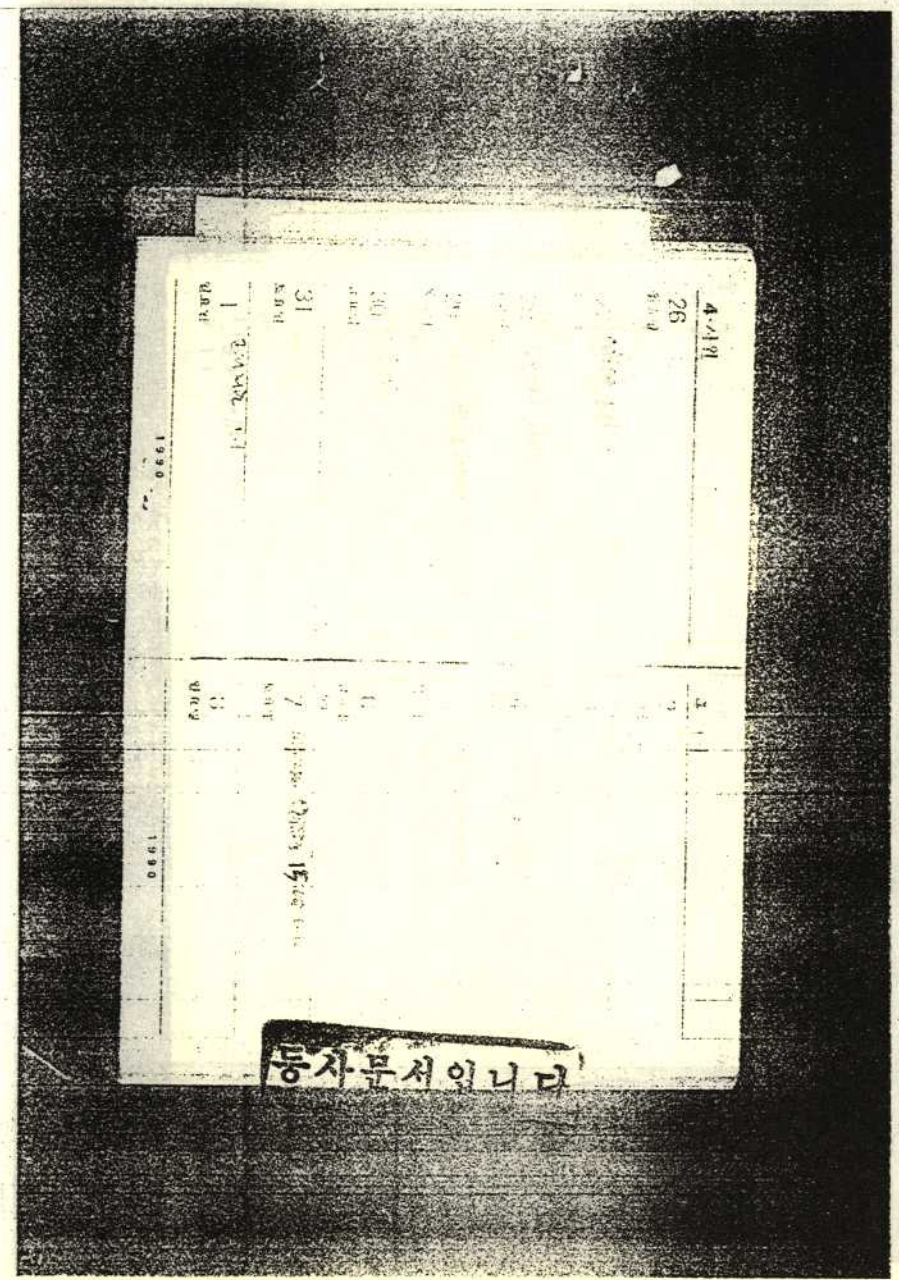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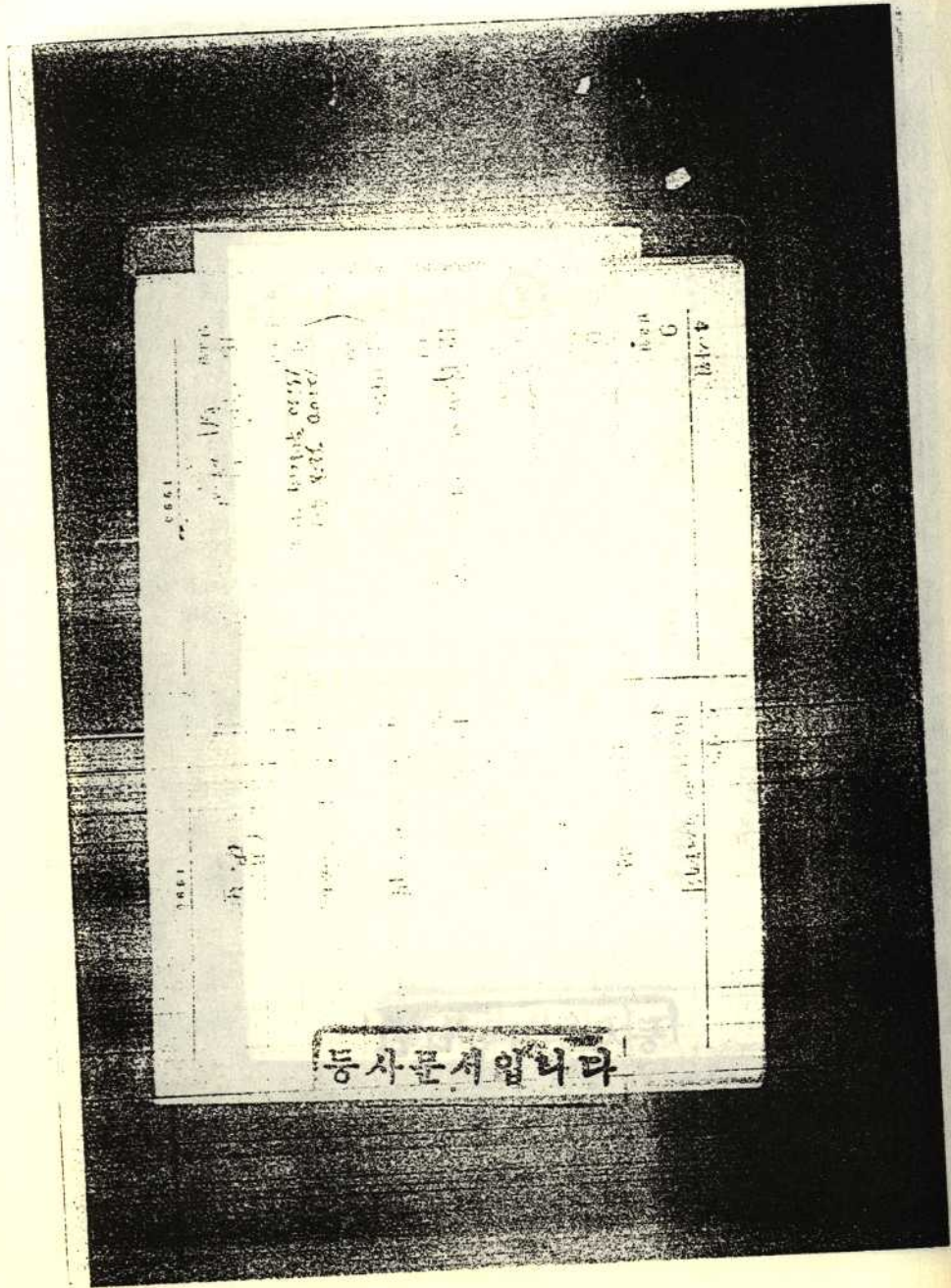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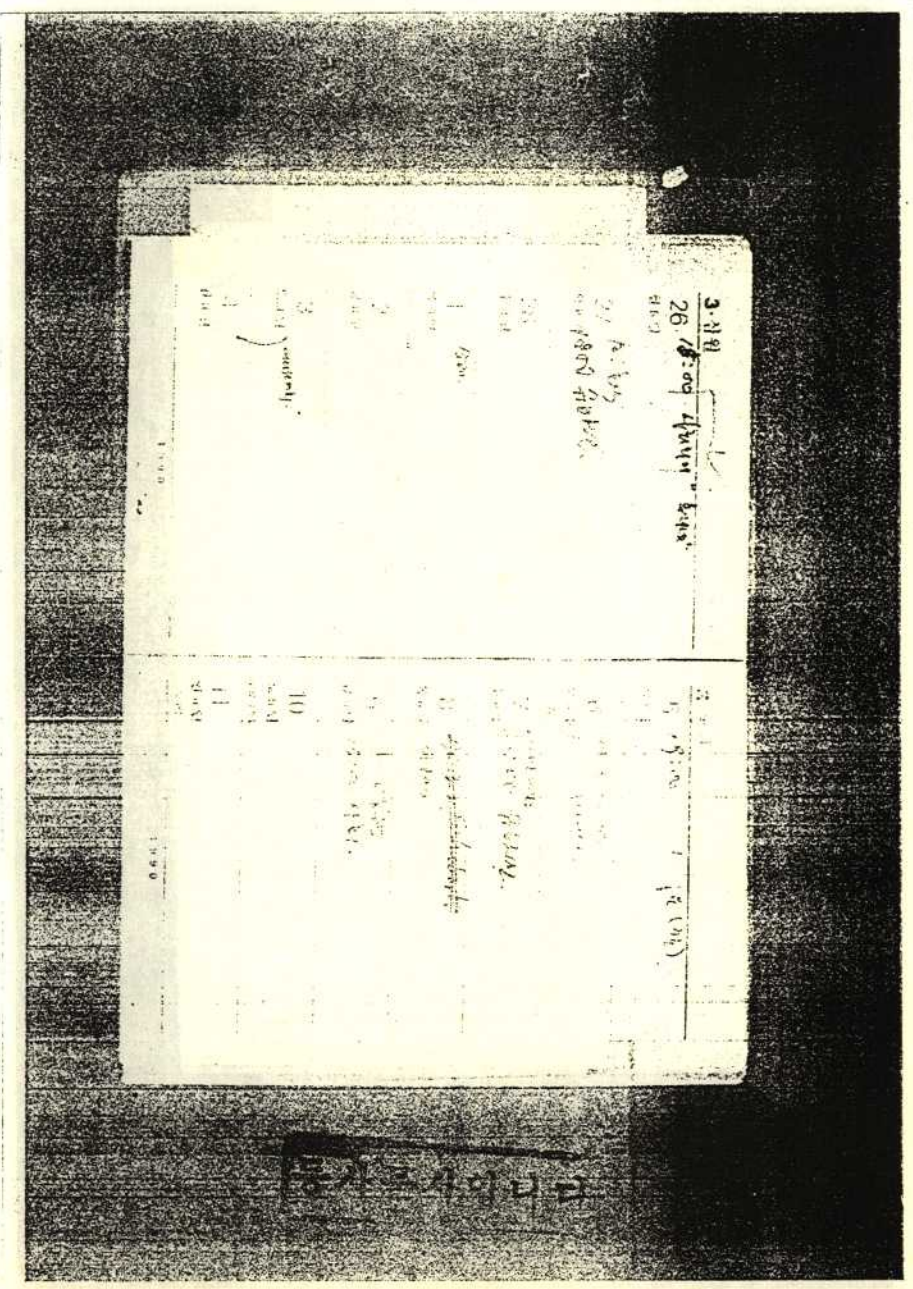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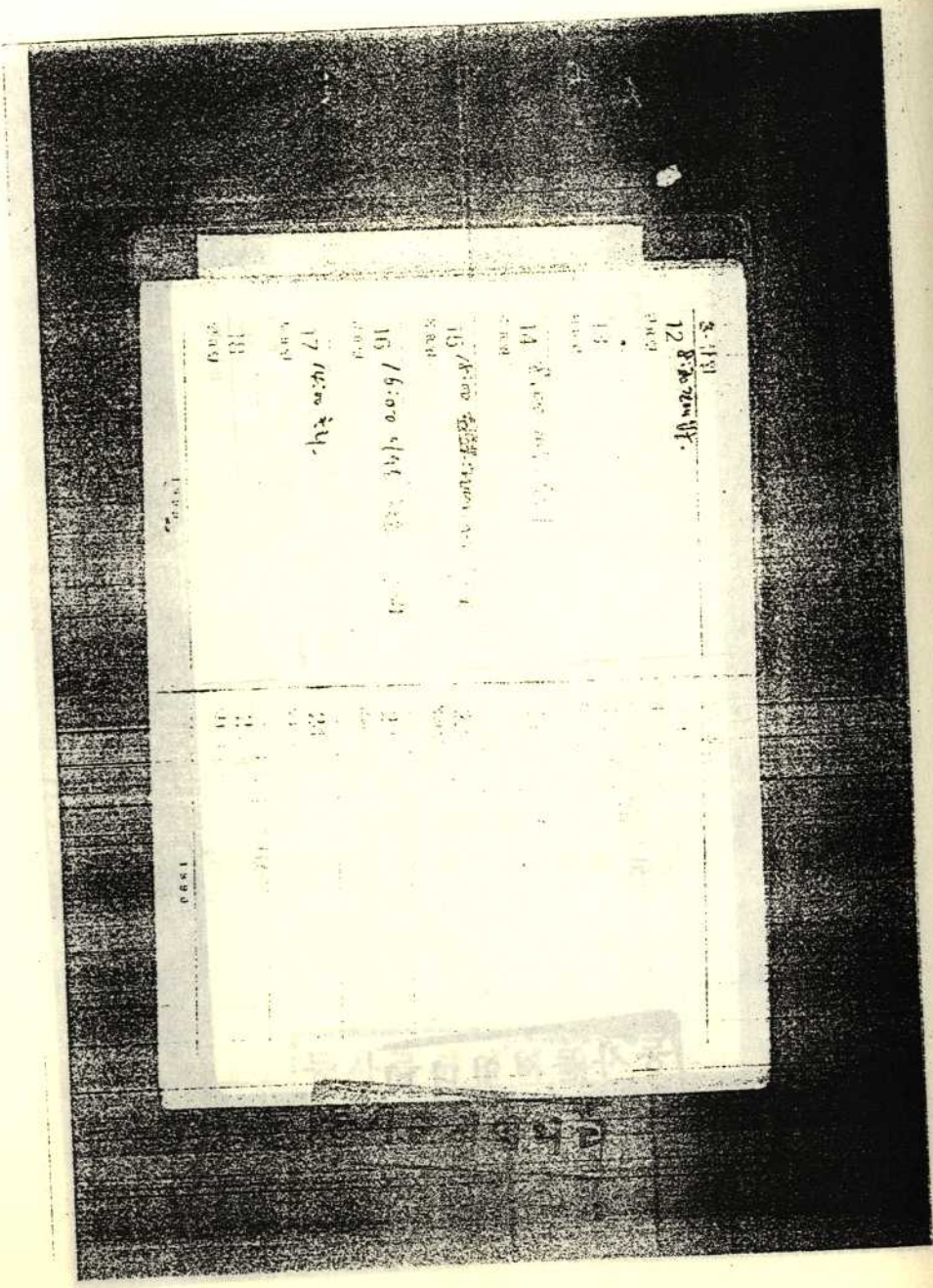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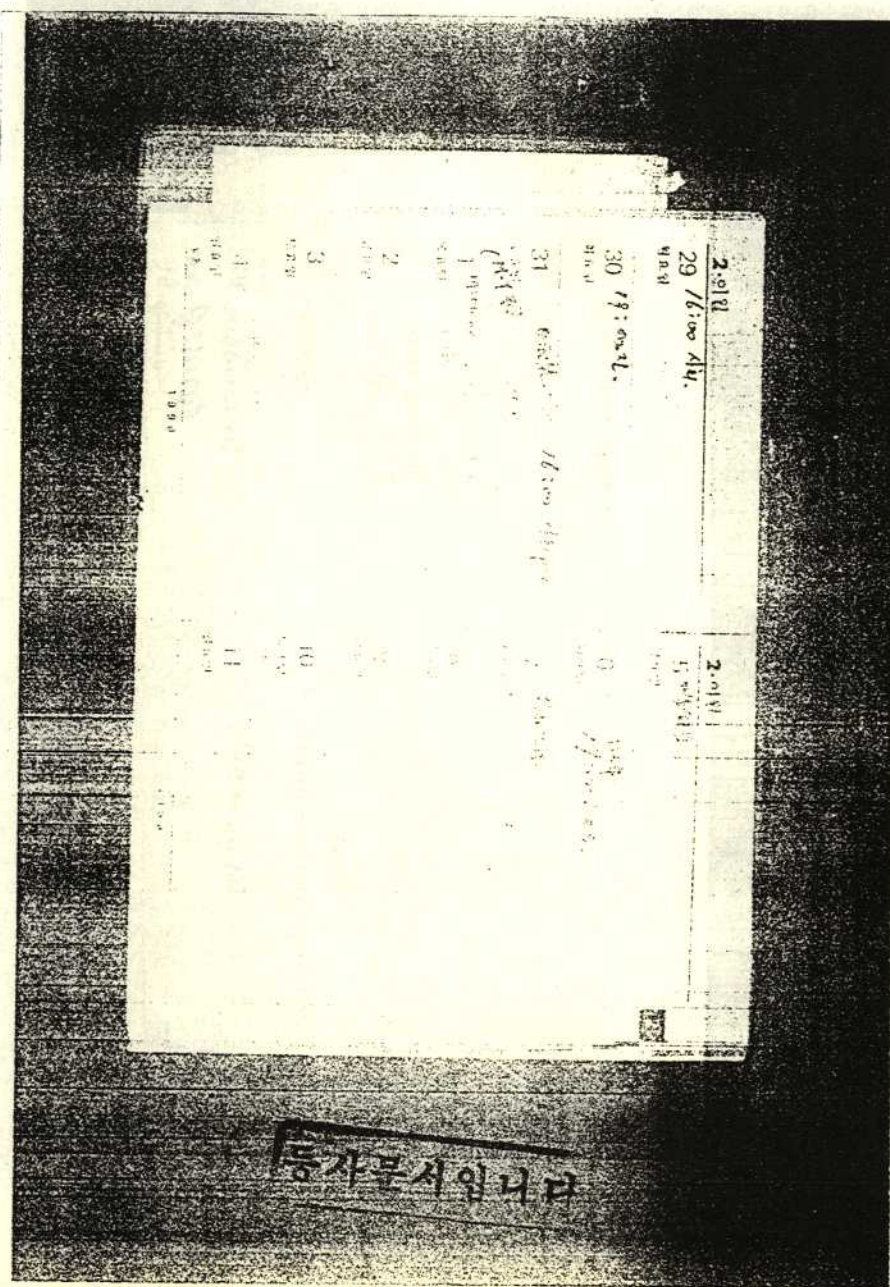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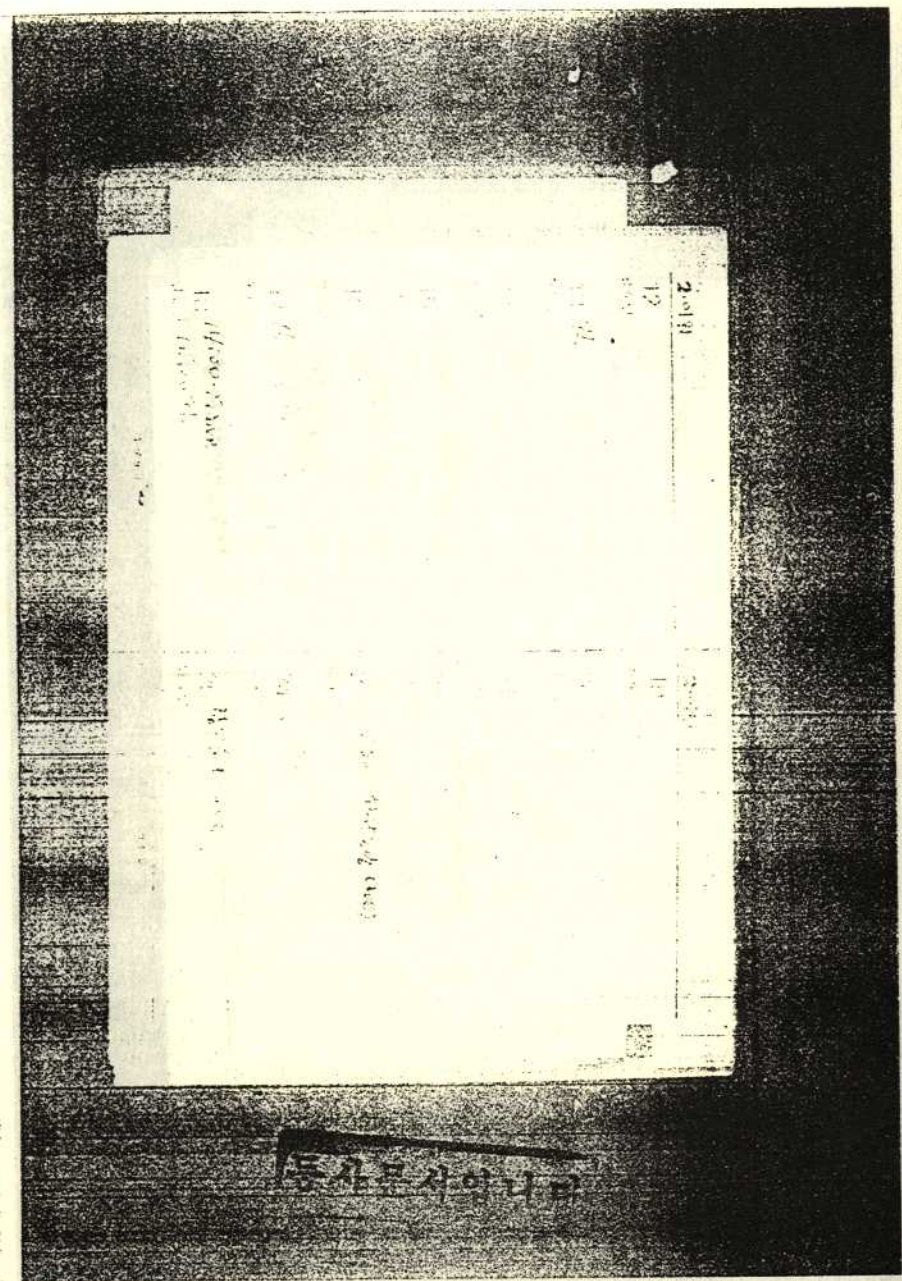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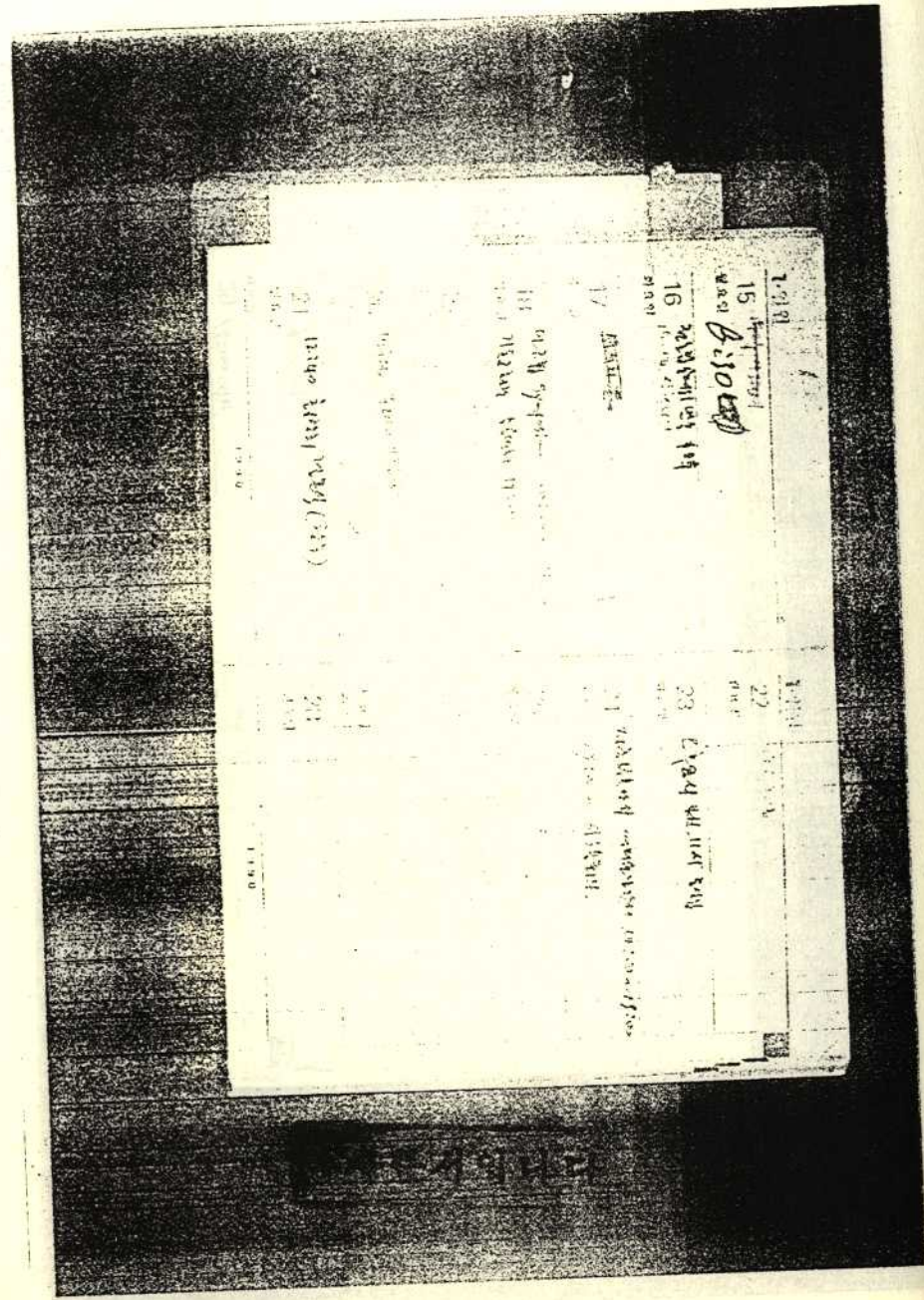












증거 9-25 전화번호수첩(강기훈)

